



통계청
통계개발원



SNUAC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제2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포스트 코로나19, 달라진 사회와 전망”

2021년 3월 17일(수), 14:00 ~ 16:15

 YouTube 실시간 중계

제2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포스트 코로나19, 달라진 사회와 전망”

목 차

인사말씀	류근관 통계청장	03
기조연설	한 준 교수 (연세대학교)	07
발 표 1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오상봉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19
발 표 2	과거 경제위기와 코로나19 확산기의 소비지출 패턴 비교 유경원 교수 (상명대학교)	33
발 표 3	코로나19 위험인식과 행태 유명순 교수 (서울대학교)	45

제2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포스트 코로나19, 달라진 사회와 전망”

인사말씀

류근관 통계청장



통계청
통계개발원



SNUAC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통계청장 류근관입니다.

먼저, 제2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연세대학교 한 준 교수님을 비롯하여 포럼에 참여하시어 발표·토론하시는 전문가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통계청 통계개발원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협력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포럼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통계청은 우리사회와 국민생활양상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종합사회보고서로서 『한국의 사회동향』을 2008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화 내용이 국민들께 공유되고 국가정책이 DATA 기반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정책담당자, 일반 국민들께서 함께 참여하는 값진 소통의 장을 처음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두 번째 포럼을 맞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19, 달라진 사회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며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우리사회는 유례없는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며 건강, 노동, 소비 등 기본적인 영역부터 시민의식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일상을 맞이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할 때 2020년은 취업자가 감소하였고, 신종 질병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인구이동이 줄어들어 따라 여행·공연 관람·숙박 등의 서비스산업이 커다란 타격을 입었고, 우리 아이들은 등교 대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동향을 시청자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객관적인 DATA도 제시될 것입니다.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취약계층의 삶은 비대칭적으로 더욱더 어려워진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소득 감소와 실업, 그리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향후 우리 사회에 부여된 제일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포럼을 통해 코로나 19로 변화된 한국사회를 돌아보고, 취약계층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며,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할 때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상처를 딛고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포스트 코로나19, 달라진 사회와 전망”

기조연설

한 준 교수 (연세대학교)



통계청
통계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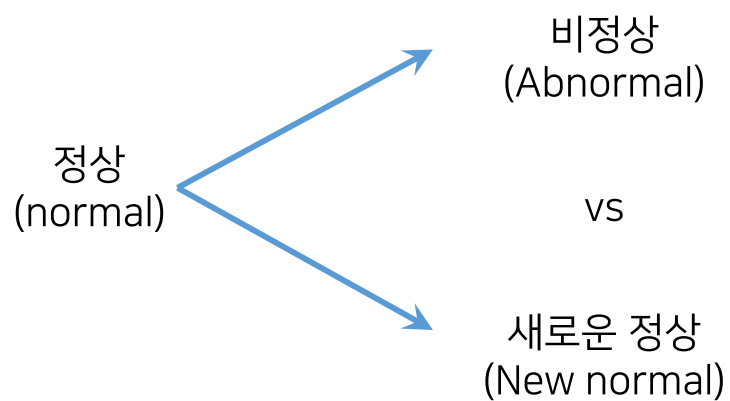


SNUAC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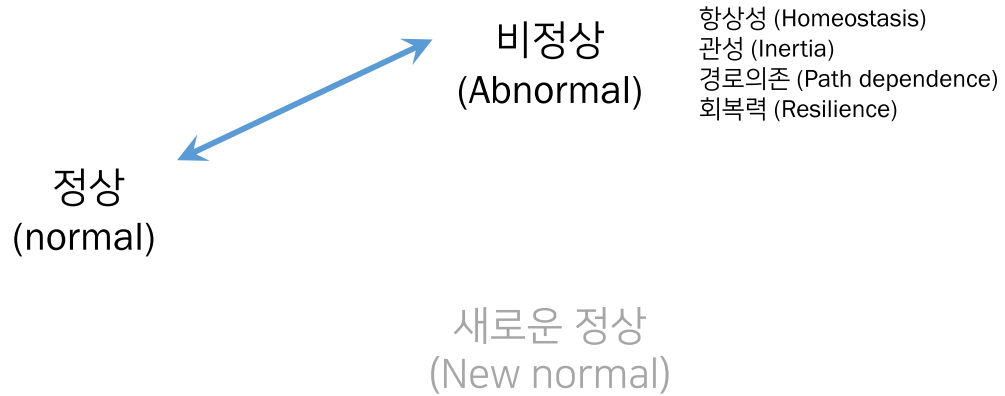
포스트 코로나19, 달라진 사회와 전망

한 준
연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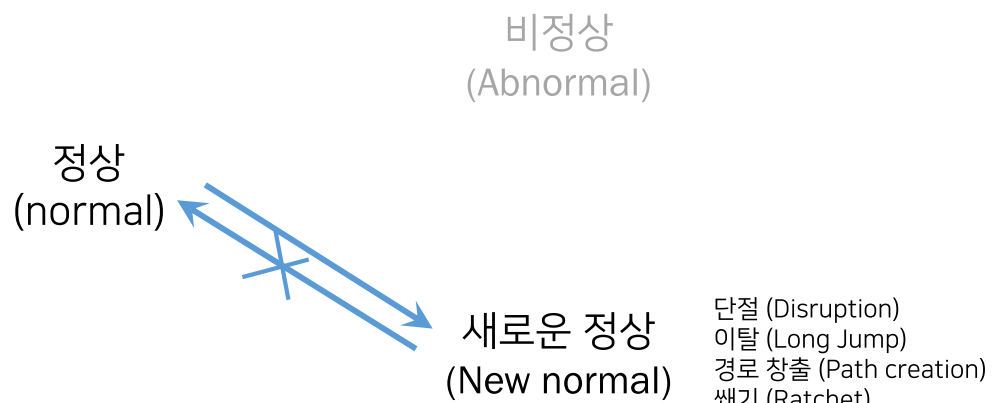
COVID-19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COVID-19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가역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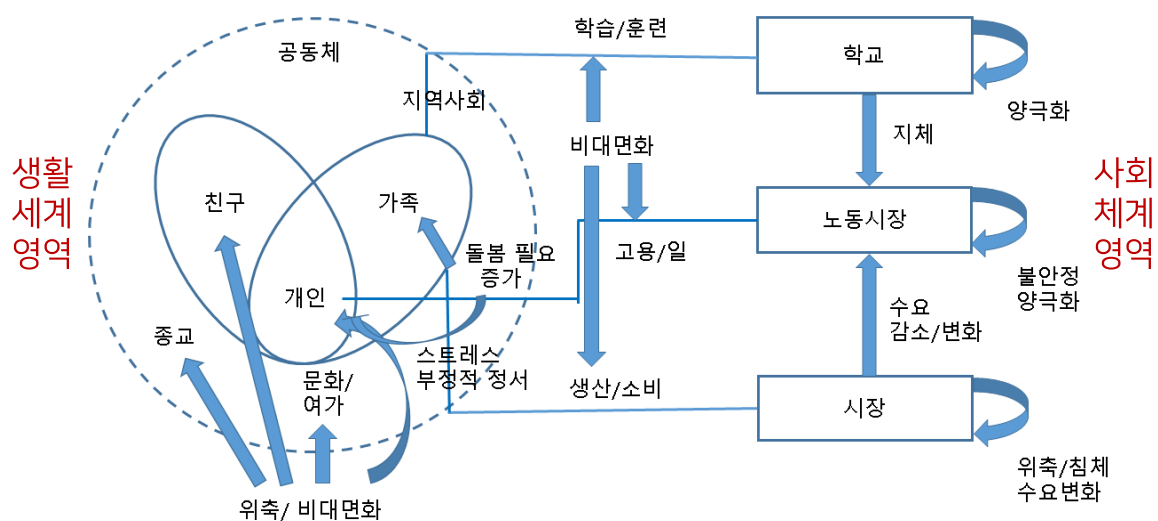
COVID-19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비가역적 변화



무엇이 변화를 가역적/비가역적으로 만드는가?

- 변화가 **도구**의 변화인가? **행동**의 변화인가?
- 행동 변화는 일시적인가? **습관**이 되는가?
- 행동 변화는 상황의 산물인가? 아니면 **가치** 변화를 동반하는가?
- 변화는 잠재된 추세에 가속화인가? **장애물**은 제거되었나?
- 변화를 지속화시키는 **법, 제도, 규범**의 변화가 있었나?
- 변화의 선택가능한 **대안**이 있는가?

COVID-19는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가?



COVID-19는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가?

생활 세계 영역

공동체

지역사회

친구

가족

개인

종교

문화/여가

위축/비대면화

학습/훈련

비대면화

고용/일

생산/소비

학교

노동시장

시장

양극화

불안정 양극화

수요 감소/변화

위축/침체 수요변화

사회 체계 영역

COVID-19, 위험사회, 불평등

- Ulrich Beck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 핵 위협, 기후변화, 스모그 vs COVID-19
- COVID-19 이후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

- Ulrich Beck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 핵 위협, 기후변화, 스모그 vs COVID-19
- COVID-19 이후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

COVID-19는 왜 불평등을 가속화 하는가?

- 디지털 기술이 경제, 사회를 비대면으로 바꾼다
- 불안 속에서 약자, 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증가한다
-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응 역량이 약해진다

불평등은 어떻게 심화되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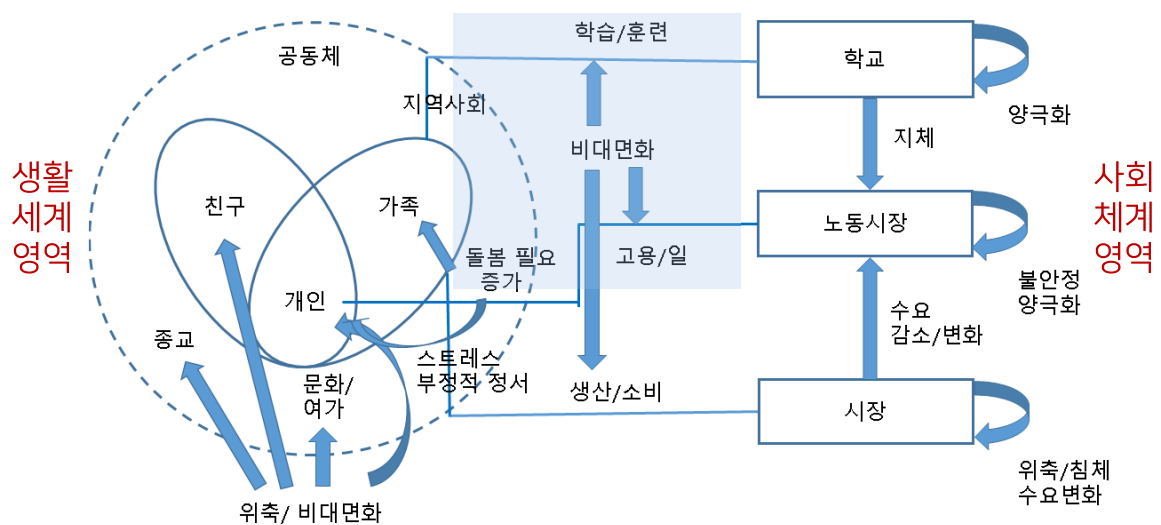
- 계급간 지위 격차가 더 심해진다
- 교육 기회와 성과의 차이가 커진다
- 지위와 교육 격차가 맞물려 사회적 이동이 막힌다

COVID-19 이후 계급간 지위 격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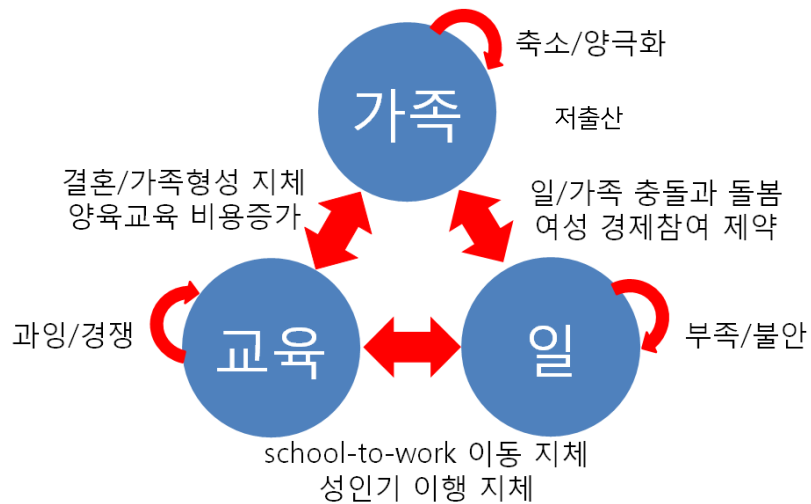
- 원격(the remote)
- 핵심(the essential)
- 대체 가능(the unpaid)
- 잊혀진(the forgotten)

- Robert Rei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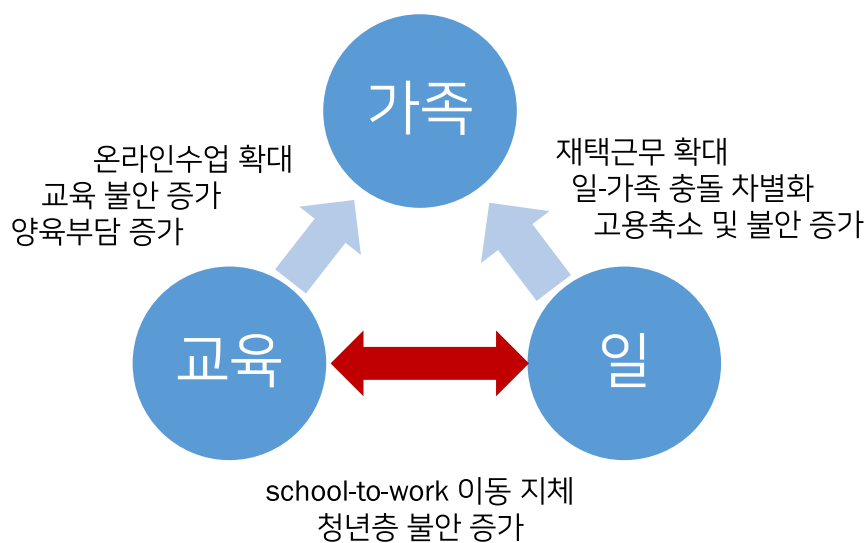
COVID-19는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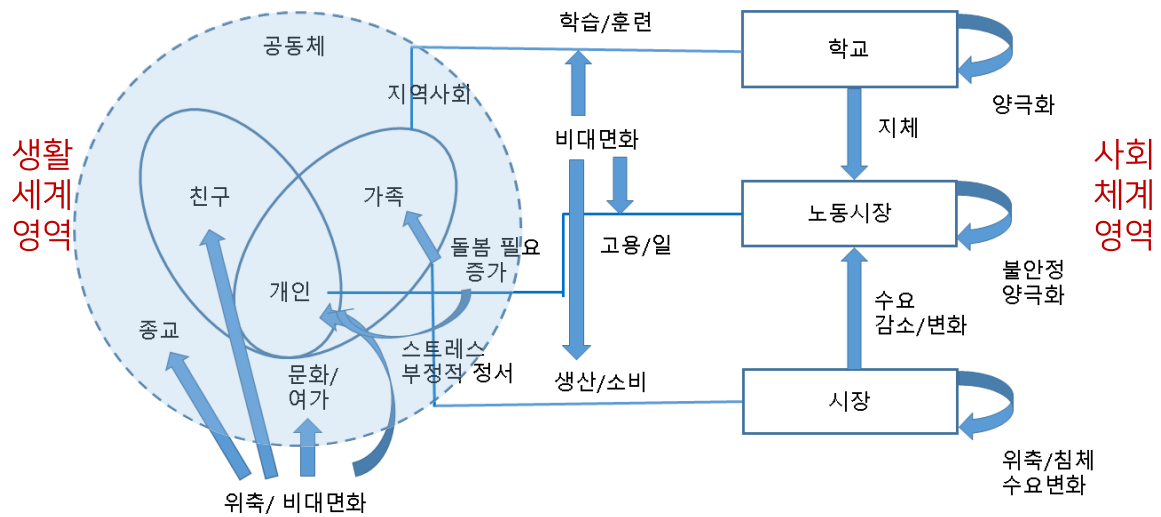
일-가족-교육 관계의 악화 추세



COVID-19로 인한 일-가족-교육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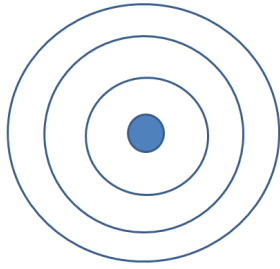
COVID-19는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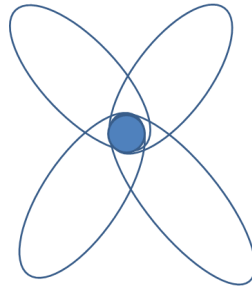
신체와 정신의 건강

- 불규칙한 삶과 불확실성에의 적응 과정에서 피로 누적
-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 상실의 불안감 증가
- 성장기, 퇴행기 취약집단에 위험 집중
- 20대의 지체된 성인기 이행으로 인한 좌절의 내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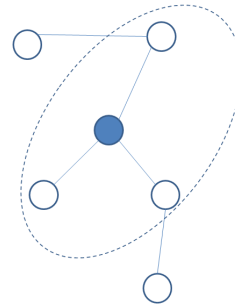
사회구조, 사회적 관계, 문화와 가치



집단주의
전통사회



개인주의
근대사회



?
네트워크사회

사회적 의식과 가치 변화

- 흡스적 안전/자유의 딜레마에서 “안전”에 편향된 의식
- 압축적 발전 경험과 신자유주의 배경 “경쟁적 개인주의” 형성
- 사회적 교류 범위와 신뢰 반경 범위 동반 축소
- 인간적 존엄과 인권 존중의 후퇴 우려

제2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포스트 코로나19, 달라진 사회와 전망”

발 표 1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오상봉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
통계개발원



SNUAC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2021년 3월 17일
오상봉(한국노동연구원)

목 차

- 분석의 개요
- 노동시장 위축
- 과거 경제위기와의 비교
- 과거 감염병위기와의 비교
- 고용감소가 큰 계층
- 결론

분석의 개요

분석의 개요

■ 분석내용

- ▶ 코로나19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 코로나19와 다른 경제위기와 비교
 -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계층 분석

■ 데이터

-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위기의 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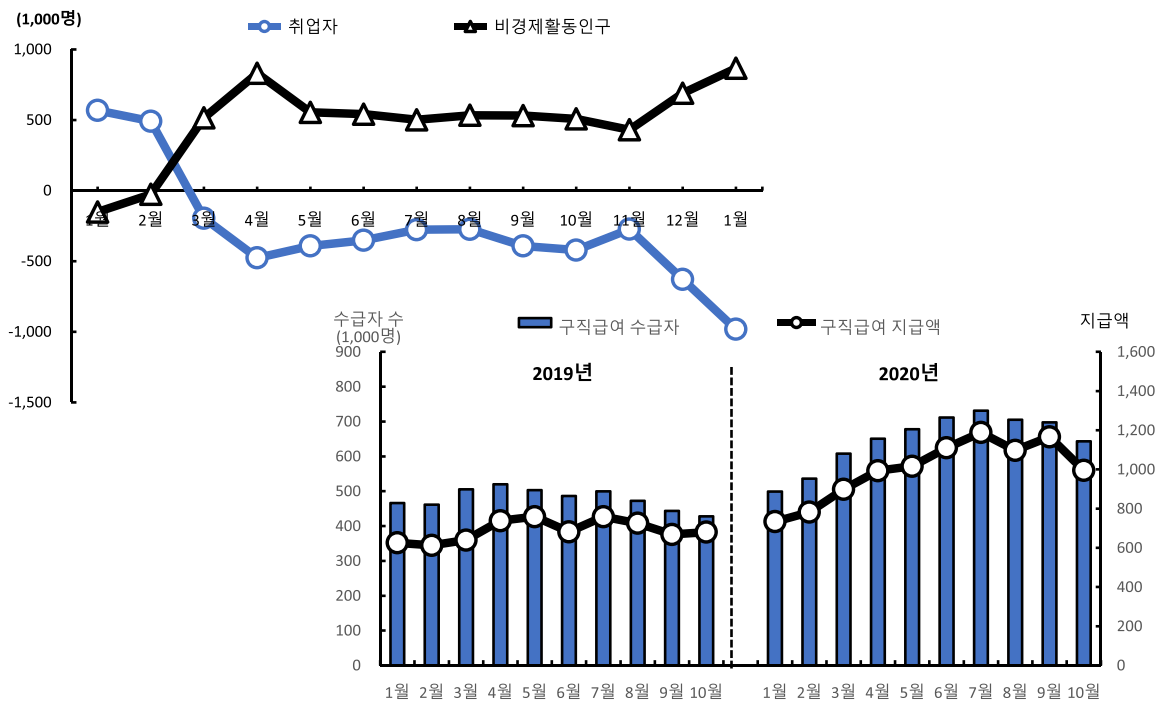
- ▶ 1차 유행의 저점인 2020년 4월을 저점으로 간주하고 분석
 - 실제 코로나19 위기의 저점은 2021년 1월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2021년 1월은 분석대상기간의 종료시점임
 - 외환위기는 1998년 8월, 금융위기는 2009년 5월을 저점으로 봄
 - 사스는 2003년 6월, 메르스는 2015년 6월을 저점으로 봄

노동시장 위축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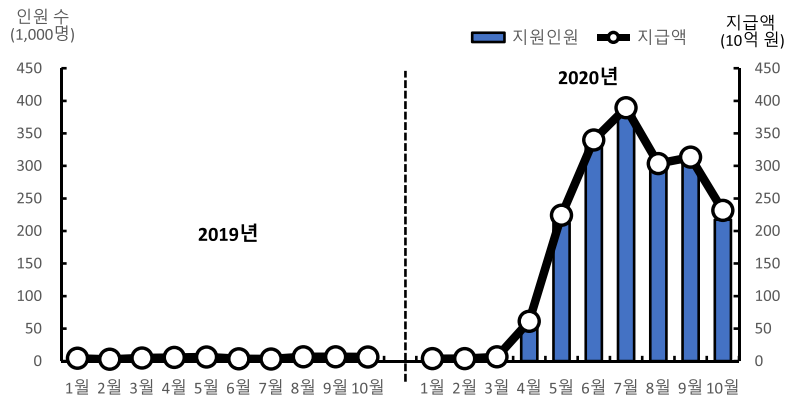
취업자 수 급감 및 구직급여 급증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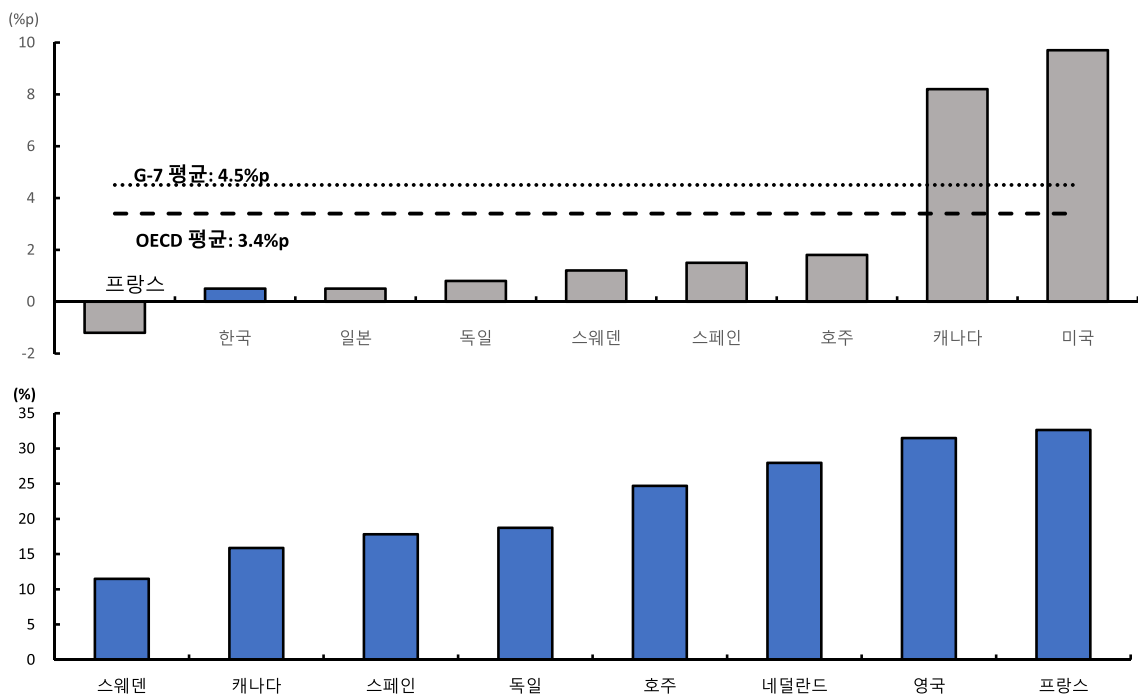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급증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7

주요국의 고용유지지원금 급증(2020. 1-5월)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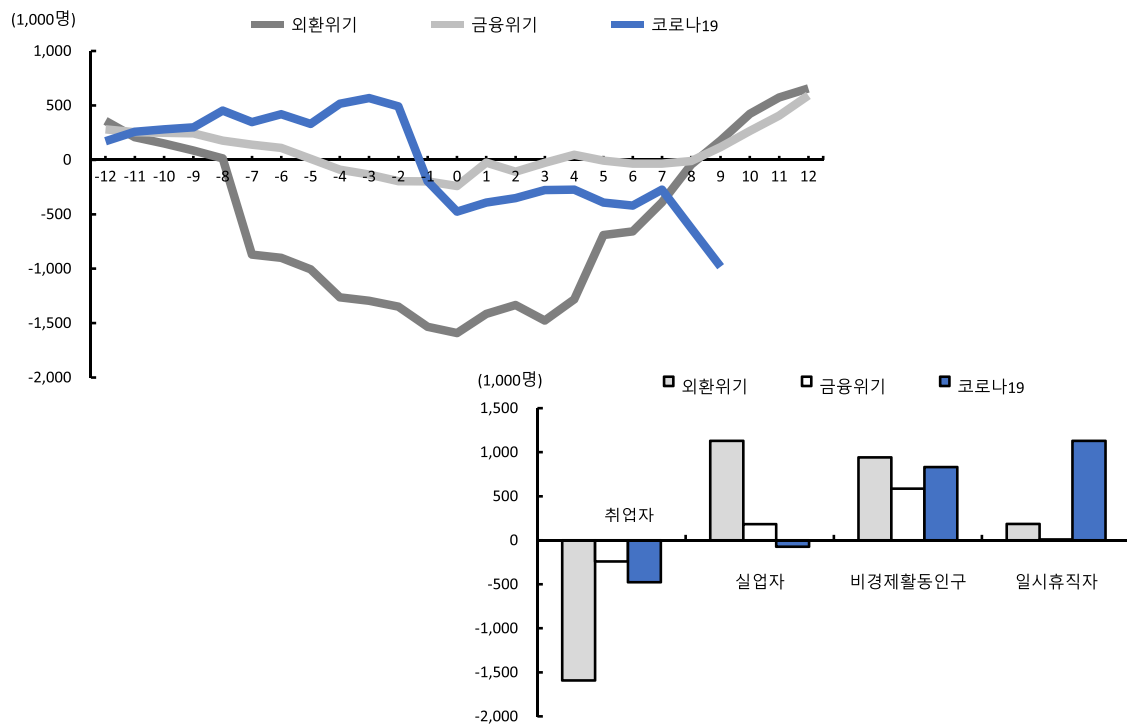
8

과거 경제위기와의 비교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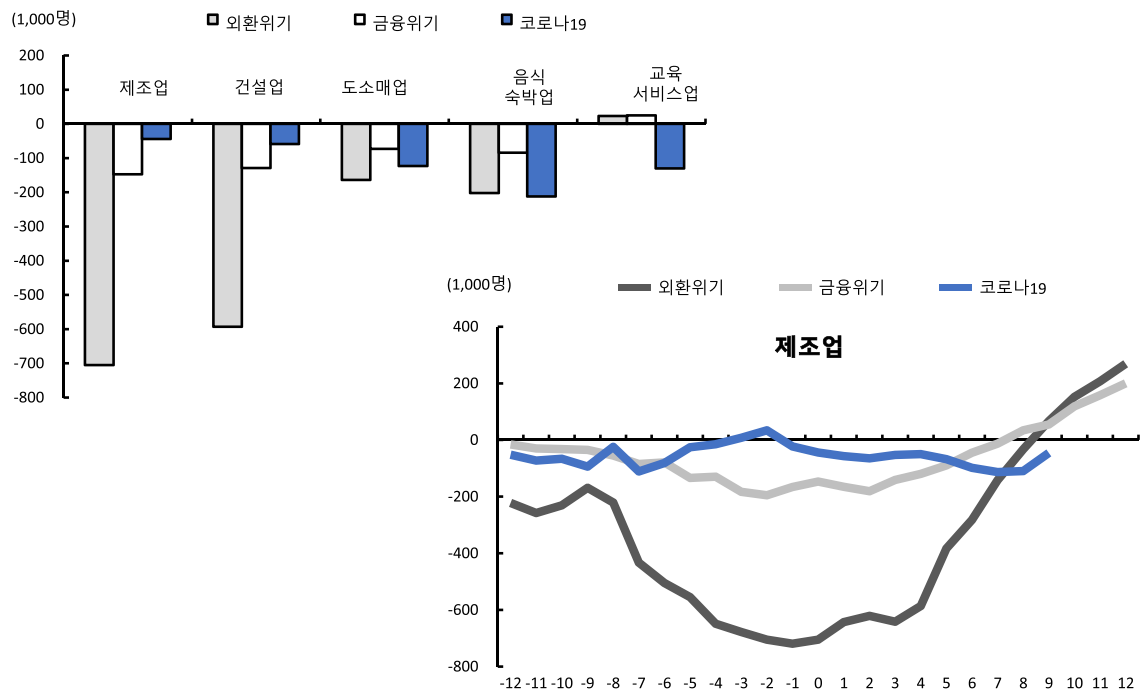
급격하지만 적은 취업자 감소, but 일시휴직 급증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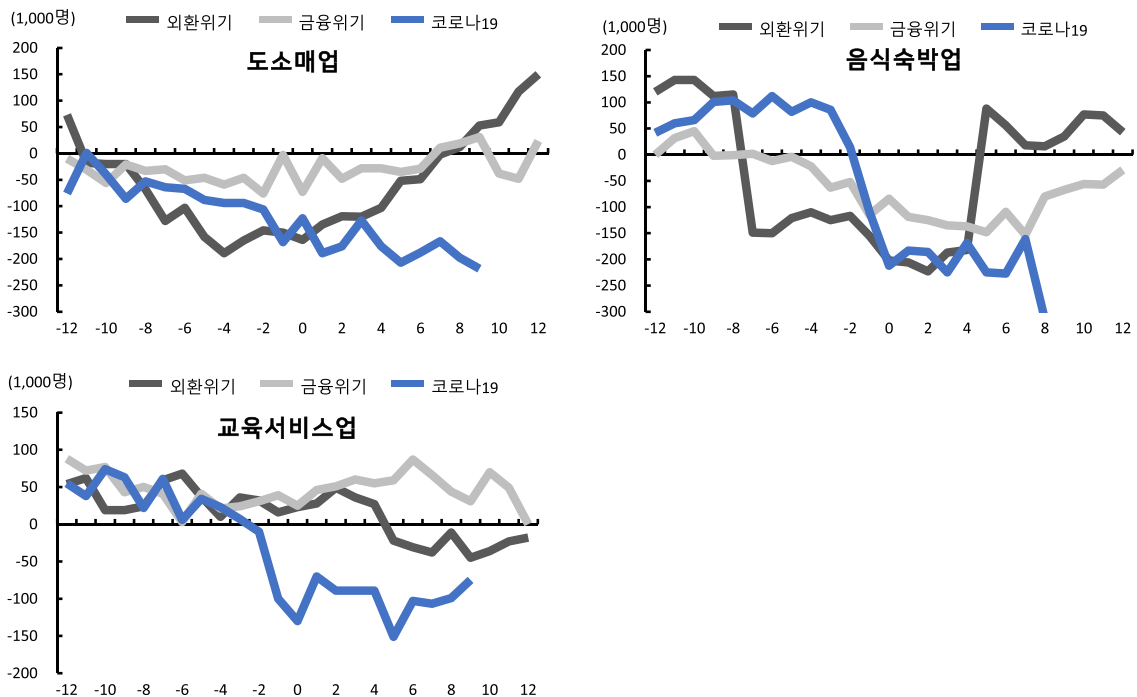
대면서비스 관련 업종 위주의 감소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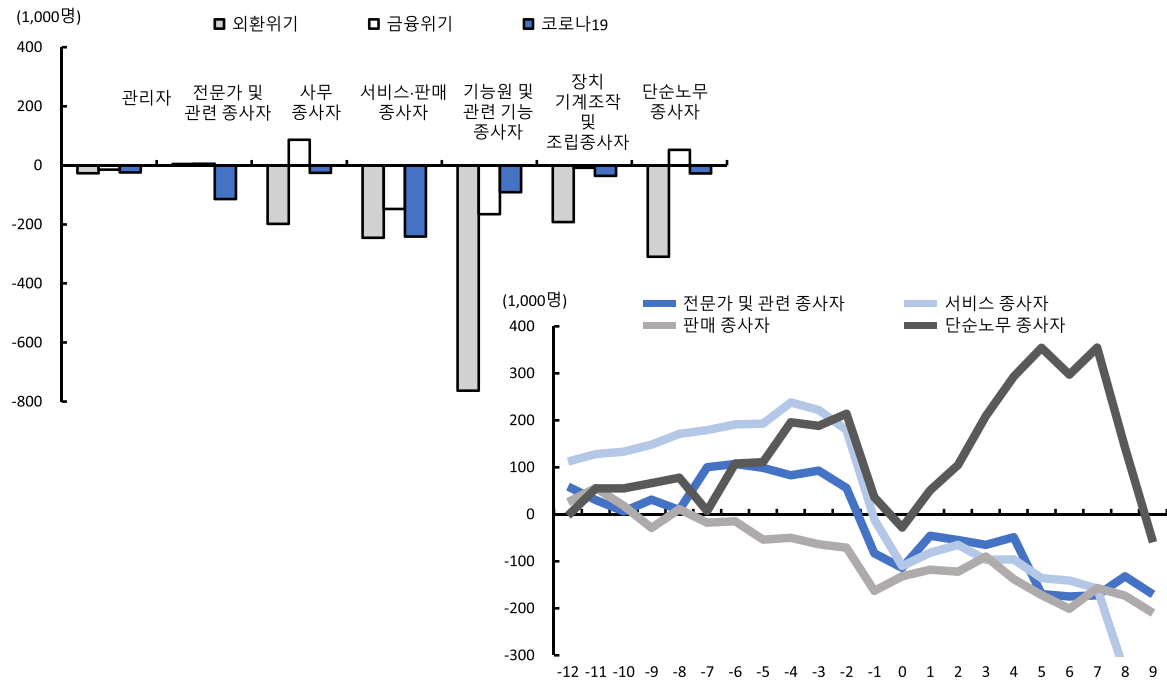
대면서비스 관련 업종 위주의 감소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12

전문직의 취업자 감소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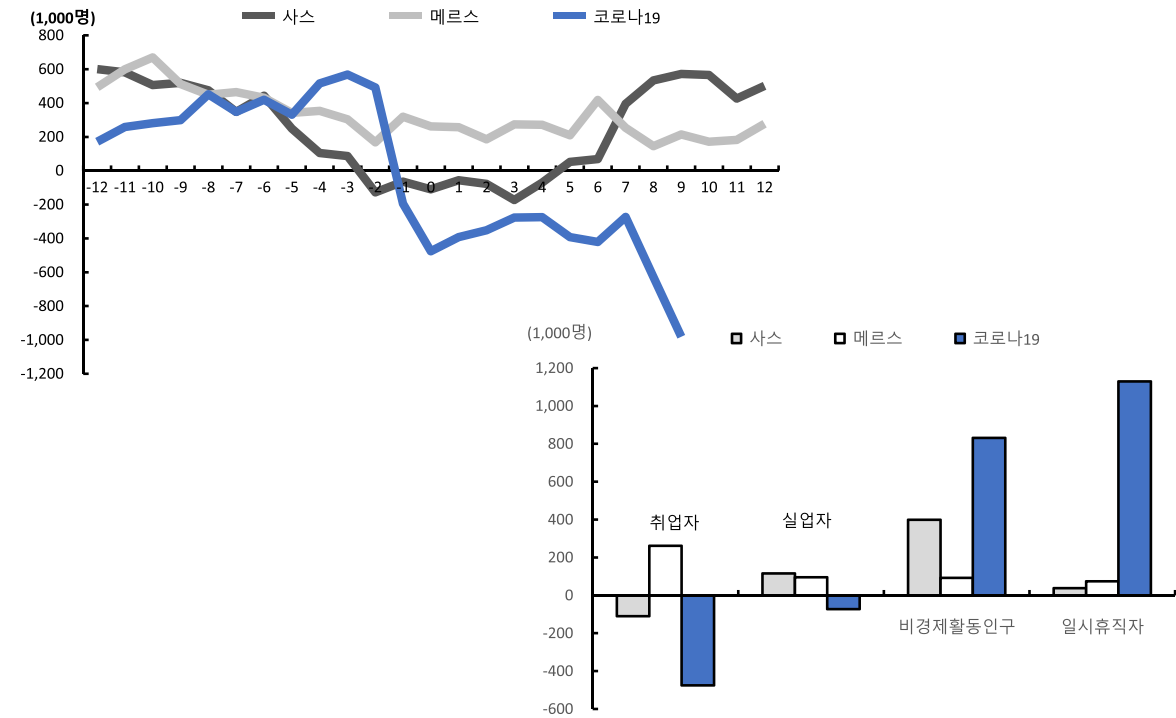
13

과거 감염병위기와 비교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14

이전 감염병 위기에 비해 큰 충격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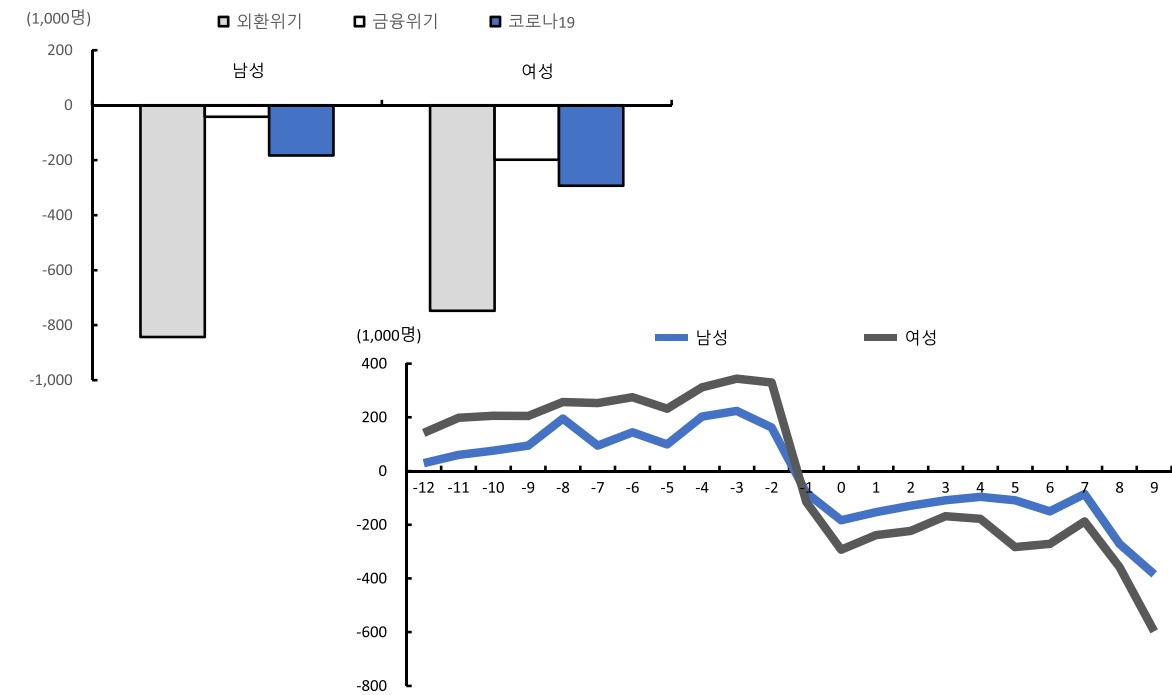
15

고용감소가 큰 계층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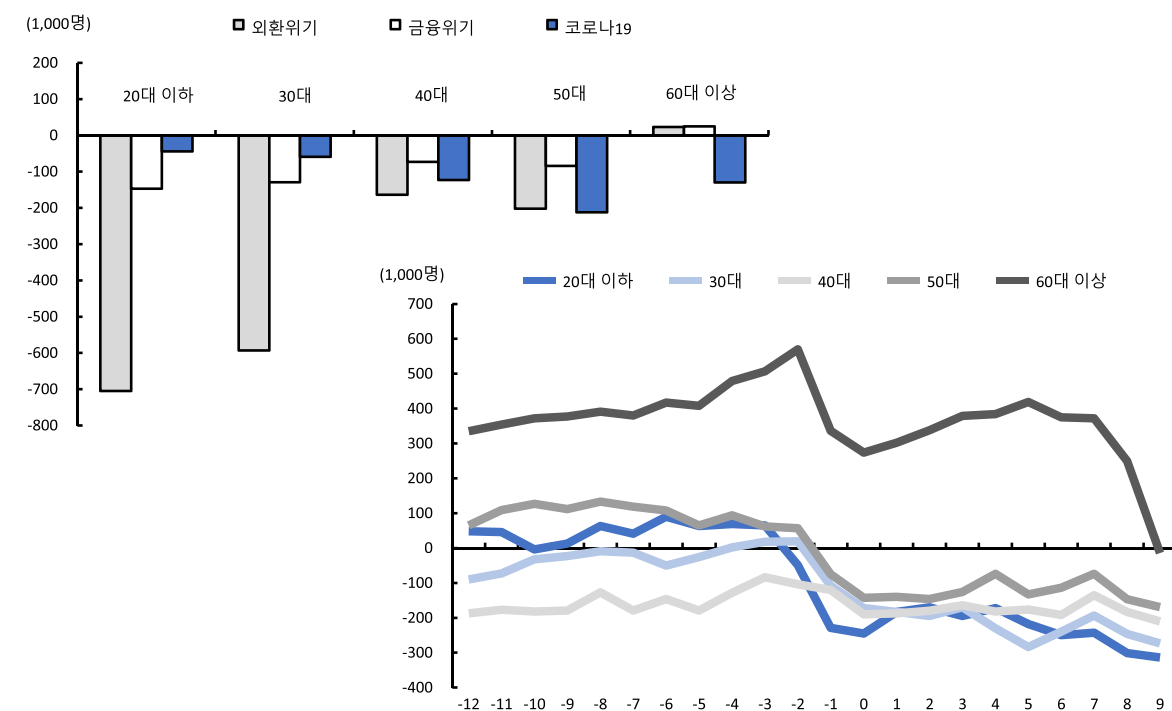
여성에게 큰 영향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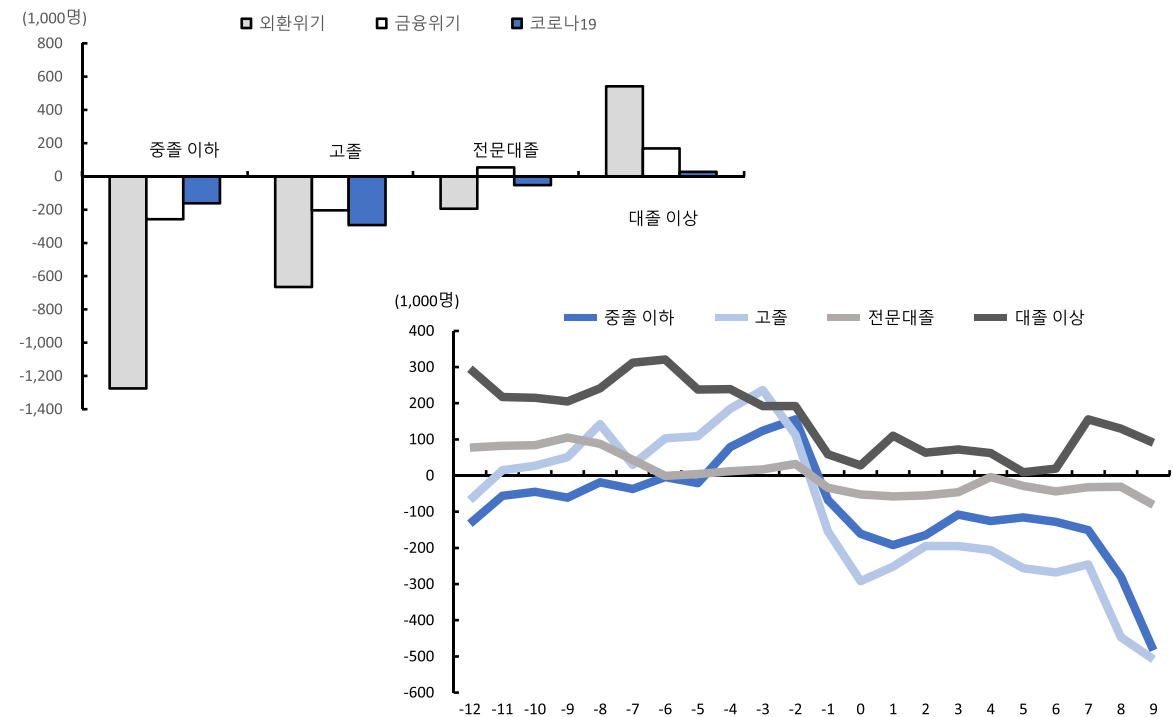
전 연령에 영향. 특히, 20대와 60대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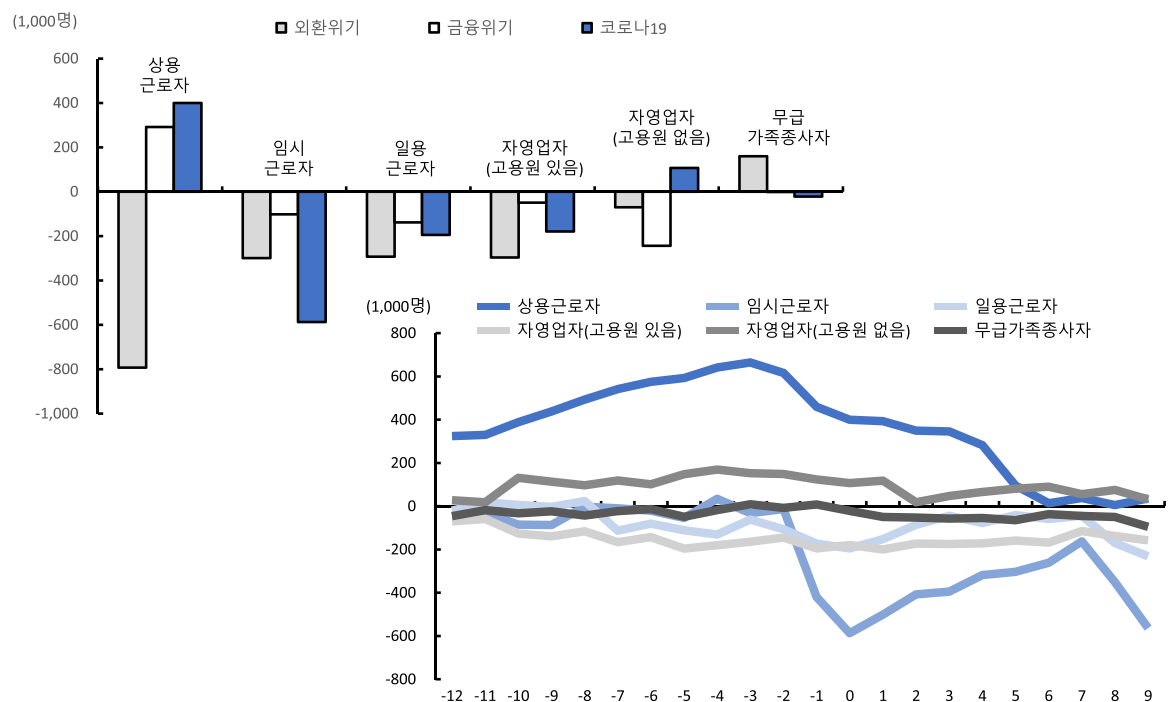
저학력자에게 큰 영향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19

임시직에 큰 영향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20

결론

감염병에 의한 강한 충격

- 경제적 이유가 아닌 감염병에 의한 강한 충격
 - ▶ 위기의 특성상 노동시장 위축이 급격히 발생
 - ▶ 감염병 유행상황에 따라 노동시장상황 유동적
 - 감염병 해소까지는 노동시장 위축은 지속될 것임
 - ▶ 다른 나라에 비해 유행 정도가 약해서 노동시장 충격이 약함
- 대면서비스 관련 업종, 직종, 취업자에 큰 영향
 - ▶ 외환위기는 제조업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코로나19는 서비스업에 큰 영향을 줌
 - ▶ 서비스, 판매직 외에도 학원강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가 크게 영향 받음
 - ▶ 여성, 청년, 저학력자, 임시직에 영향이 큼

외부노동시장 위축을 고려한 대책

- 노동시장에 대한 부작용보다 수요의 위축을 우선 고려
 - ▶ 각종 지원금은 노동시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경제 전체적인 구인 위축으로 신규취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우선 고려해야
- 기존 취업자의 고용유지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필요
 - ▶ 기존 임금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보다 과감한 지원 필요
 - 위기상황의 장기화로 피해 사업체의 지불여력이 거의 완전히 소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전보다 과감한 지원 필요
 - ▶ 영향이 큰 업종의 폐업 방지를 위한 보다 과감한 지원 필요
 - 피해 사업체에 지원 집중 필요
 - 지원에 필요한 행정인프라 개편
 - ▶ 실직한 근로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
 - 실업급여의 일시적 지원 연장 등 고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시적 요건 완화 고려

제2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포스트 코로나19, 달라진 사회와 전망”

발 표 2

과거 경제위기와 코로나19
확산기의 소비지출 패턴 비교

유경원 교수 (상명대학교)



통계청
통계개발원



SNUAC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제2회 사회동향 포럼 발표자료]

과거 경제위기와 코로나19 확산기의 소비지출 패턴 비교

2021.03.17.

유 경 원
상명대학교

목차

- I. 들어가며
- II. 과거 주요 위기의 특징
- III. 위기 시 소득과 소비지출의 변화
- IV. 위기 시 소비지출 항목의 변화
- V. 위기 시 가계특성별 소득 및 소비지출의 변화
- VI. 마치며

1. 들어가며 (1/2)

-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으며 2020년 초부터 세계적 전염병 대확산(Pandemic)인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감이 지속되고 있음.
- 본 발표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오는 경제적 영향을 가게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과거의 주요 위기의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구함.
 - 지난 30년간 우리가 경험하였던 주요 위기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가 경제 특히 가게 소비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20년 1/4분기까지 거시 총량자료인 「국민계정」 자료와 미시자료인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과 소비지출의 변화를 분석하고, 가게 특성에 따라 소득 감소와 소비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함.

3

1. 들어가며 (2/2)

- 주요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과거 위기 사례를 보면 소득과 소비지출 모두 감소하지만, 소득보다 소비의 감소 폭이 더 커서 가계저축률이 상승함.
 - 통상 큰 폭의 소득 감소로 인해 소비지출이 조정되는데, 내구재와 준내구재 항목의 비중이 감소하고 비내구재 및 서비스 비중이 증가함.
 - 위기로 인한 소비지출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난 항목은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사 서비스와 음식·숙박이었음.
 - 위기의 영향은 저소득,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이 더욱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과거 위기 사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소득 감소와 소비지출 조정이 가장 컸던 위기는 외환위기이며,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는 기존 위기와 상이하지만 소비지출 대응 측면에서 외환위기와 일부 유사한 패턴을 보임.

4

2. 과거 주요 위기의 특징 (1/2)

- 1990년 이후 첫 번째 경제위기는 **외환위기**로 지난 30년간 경제적 충격이 가장 컸던 위기로 평가됨.
 - 외환위기는 기본적으로 기업금융 차원의 위기였고 이후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은 소비자금융에 집중하기 시작하였음.
- 이러한 소비자금융의 확대로 2003년에 **신용카드 위기**가 발생하였음.
 - 신용카드 위기는 2003-2004년에 발생한 최초의 소비자금융 부실로 인한 경제위기였고, 이 같은 상황에서 2003년 말 기준 경제활동인구 2,306만 명의 16%인 372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신용불량자들이 발생
- 이후 우리나라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에서 비롯된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겹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함.
 -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위기는 우리나라 경제 및 금융시장의 문제로 발생한 측면이 큰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 그리고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결부되면서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임.

5

2. 과거 주요 위기의 특징 (2/2)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경제충격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전 세계 정부의 전례 없는 정책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코로나19의 충격은 기존의 경제·금융위기와는 전혀 다른 원인(전염병의 확산)에 기인하며 2002-2004년의 사스(SARS)나 2015년 메르스(MERS)보다 전염도가 높아 이러한 전염병의 대확산과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경제침체가 현실화되었음.
- 한편 과거 우리나라 위기가 가계부문에 끼친 영향은 우선 **소득 감소**로 나타남.
 - 가계는 소비지출 축소와 항목 조정 등의 소비 변화가 있고 이에 따라 가계의 흑자율이나 저축률이 영향을 받음.
 - 과거 위기사례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가계의 흑자율이나 저축률은 다가올 위험에 대한 대응이나 미래 소비지출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 경기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됨.
- 따라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의 소비지출 패턴을 살펴보기 위해 **가계부문이 위기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소득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고, 이로 인한 **소비지출 조정과 흑자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봄.

6

3. 위기 시 소득과 소비지출의 변화 (1/2)

- 거시 총량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위기 상황이 되면 소비지출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큰 폭으로 감소함.

- 이러한 소비지출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가계 순저축의 증가로 나타나고 위기가 지나간 이후에는 소비가 빠르게 반등하는 경향이 나타남.

- 우리나라 전체의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흐름, 위기 시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측 그림과 같음.

- 1990년부터 2019년까지의 「국민계정」 자료에 기반해 살펴보면, 위기 시 소비지출의 변화가 민감하게 나타남.
- 외환위기에 이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후 2003년 신용카드 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

<그림 1> 가계 소득 및 소비 증가율(1990-2019)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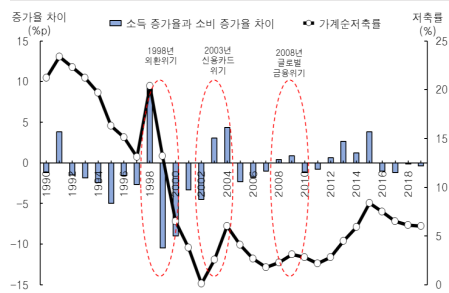
7

3. 위기 시 소득과 소비지출의 변화 (2/2)

- 한편, 위기의 발생으로 소득 감소보다 소비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 가계의 순저축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

- 우측 그림에서 보듯이 외환위기 당시 소득 하락의 충격으로 가계의 소비조정이 발생하여 가계순저축률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러한 패턴은 신용카드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나타남.

<그림 2> 가계 소득과 소비 증가율의 차이와 가계순저축률(1990-2019)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 과거 사례를 보았을 때 위기가 발생하면 가계에 있어서 먼저 소득 감소가 나타나고 가계는 이를 소비지출 감소와 소비구조조정을 통해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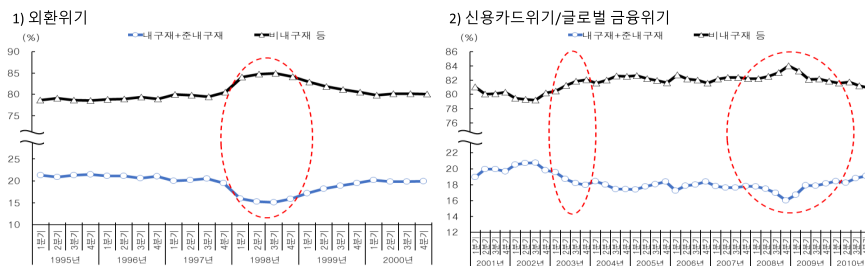
- 이에 따라 재정상의 완충 역할을 하는 저축률이 변화하게 됨.
- 아울러 소득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클수록 소비조정 이외에도 미래 소득의 불안정성에 대비한 예비적 저축수요로 인해 소비지출이 더욱 더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8

4. 위기 시 소비지출 항목의 변화 (1/2)

- 위기 상황 시 내구재 소비는 감소하고 비내구재 소비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음.
 - 이는 주로 식료품과 같은 필수재 성격의 재화 소비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전반적인 소비지출이 급하지 않은 내구재 소비의 감소로 조정하고 있음을 나타냄.
- 소비지출의 항목별 변화를 「국민계정」의 가계 최종소비지출 자료를 이용해 살펴봄.
 - 소비지출 항목의 변화를 살펴보면 내구재와 준내구재 소비지출의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남.
 -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기에 내구재와 준내구재 항목의 비중이 감소하고 대신 비내구재와 서비스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위기 전후 소비지출 항목 비중 추이(1995-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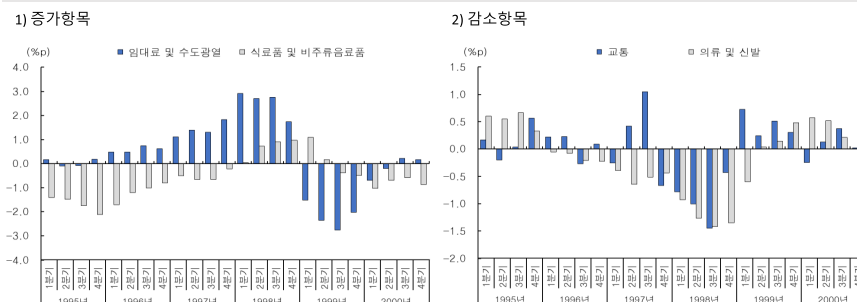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9

4. 위기 시 소비지출 항목의 변화 (2/2)

- 가계의 소비지출을 12대 비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위기 시에는 소득 감소로 인한 어려움으로 가계의 의·식·주 중에서 의가 줄어듦과 주와 식이 늘어남.
 -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의류 및 신발 항목과 교통비 항목이 감소하고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임대료 및 수도·광열비 항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외환위기 전후 비중 증가 및 감소 소비항목(1995-2000)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10

5. 위기 시 가계 특성별 소득 및 소비지출의 변화 (1/4)

- 미시자료인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거시 총량자료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가계의 주요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라 위기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대응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살펴봄.

- 소득계층별, 종사상 지위별, 연령대별로 살펴보고 특히 위기에 취약한 저소득(1분위), 임시·일용직, 고령자, 자영업 계층을 중심으로 고소득(5분위), 상용직 계층과의 비교를 수행

- 우측 표와 같이 위기가 발생하면 가계소득 감소가 계층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가 다른 계층들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1> 가계 특성별 위기 시 가처분소득 변화 (1998, 2003, 2008, 2020.1/4) (단위: %)

가계 특성	1998 (외환 위기)	2003 (신용카드 위기)	2008 (글로벌 금융위기)	2020.1/4 (코로나19 확산기)
전체	-12.9	1.0	3.5	3.7
소득 1분위	-25.3	-4.5	-0.7	0.2
소득 5분위	-5.9	-1.3	5.7	6.5
상용직	-7.5	9.4	4.7	3.7
임시/일용직	-20.2	-3.1	1.6	-3.4
자영업	-14.7	0.6	5.2	0.3
고령자	-14.9	-8.5	-1.4	12.1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11

5. 위기 시 가계 특성별 소득 및 소비지출의 변화 (2/4)

- 과거 위기를 살펴볼 때 통상적으로 소득 감소가 발생하면 소비지출도 증감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함께 감소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기존 위기 발생과는 원인이 상이한 전염병 확산이기에 그 경제적 영향도 일정 부분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가처분소득이 2020년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7%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은 6.5% 감소함.
- 이는 소득 감소에 기인하여 소비지출 조정을 가져온 기존의 위기 확산과는 다른 양상임.

<표 2> 가계 특성별 위기 시 소비지출 변화 (1998, 2003, 2008, 2020.1/4) (단위: %)

가계 특성	1998 (외환 위기)	2003 (신용카드 위기)	2008 (글로벌 금융위기)	2020.1/4 (코로나19 확산기)
전체	-11.5	1.8	2.7	-6.5
소득 1분위	-11.9	0.5	1.1	-5.4
소득 5분위	-9.8	-1.5	1.8	-2.1
상용직	-9.8	9.7	4.9	-7.7
임시/일용직	-18.4	2.8	2.0	-7.3
자영업	-11.5	0.3	2.3	-3.0
고령자	-13.1	-11.1	-2.6	-4.3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12

5. 위기 시 가계 특성별 소득 및 소비지출의 변화 (3/4)

- 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조정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외환위기 시기에 가장 소득 감소가 컸던 1분위 저소득계층은 소비지출에 있어서 다른 계층들에 비해 큰 조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소득 최상위 5분위와 상용직의 경우 소득 감소 폭보다 오히려 소비지출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나 선제적인 소비지출 구조조정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취약계층은 소득이 감소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비여력이 부족하여 소비지출을 조정할 여지가 크지 않았지만 소득안정계층은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소비지출을 더 크게 줄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위기를 대비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양상은 경제적 위기로 인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신용카드 위거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일부 나타남.
 - 2003년 신용카드 위기 시에는 소득 1분위 계층의 경우 가처분 소득 감소가 -4.5%에 이를 정도로 충격을 받았으나 소비지출 조정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

13

5. 위기 시 가계 특성별 소득 및 소비지출의 변화 (4/4)

-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2020년 1/4분기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 소득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소비지출 대응에서는 지출 감소의 폭이 크게 발생하였음.
- 또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소득 정체 및 감소로 이들 계층의 소비지출은 외환위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감소하였고, 소득 변화보다 소비조정은 더 크게 발생하였음.
- 5분위나 상용직의 경우에는 소득증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 감소가 나타남.
- 위기 시기에는 소득 감소 및 소비지출 조정으로 인해 흑자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소득 충격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지출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흑자액이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임.
 - 다른 위기와 달리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임시·일용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났기에 이들을 포함한 전 계층의 흑자액은 늘거나 적자규모가 줄었음.

14

6. 마치며 (1/2)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현재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소득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초기 단계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소비지출 조정에서는 외환위기에 준하는 경제적 충격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기존 위기와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득 감소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와 비슷함.
- **위기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소득 감소에 대한 대응은 그 위기의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 감소로 인한 충격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소득 감소에 따라 소비지출 조정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위기감이 고조될 때 소비주체들은 소비지출을 더 큰 폭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여력이 있는 계층에서 이런 반응이 나타남.

15

6. 마치며 (2/2)

- **코로나19의 충격은 전염병의 빠른 확산과 백신의 부재로 초유의 비대면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가져왔으며 경제적 원인에서 발생한 기존 경제위기 양상과 유사점과 차이점이 나타남**
 - 기존 위기와 달리 코로나19의 영향은 전반적인 소득 충격보다는 특정부문과 계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차이점이 있으나 전반적인 소비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 양상은 기존 위기와 유사함.
 - 이로 인해 계층과 부문간 차이와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
- **한편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증가한 유동성과 이로 인한 자산시장 과열 양상 속에서 움츠러든 소비와 축적된 저축이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에 따라 경제 움직임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 그동안 코로나19 불확실성으로 인한 예비적 행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라 소비지출의 진폭이 매우 커지고 경기변동이 급격해질 우려가 있음.
 -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안정적인 경제운용이 필요

16

감사합니다.

제2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포스트 코로나19, 달라진 사회와 전망”

발 표 3

코로나19 위험인식과 행태

유명순 교수 (서울대학교)



통계청
통계개발원



SNUAC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제2회 사회 동향 포럼
주제3 : 코로나19 위험인식과 행태

유명순 교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부탁 말씀

오늘의 발표자료는 데이터의 학술적 활용 전 발표 용도로
기초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인용·회람하실 때
<사회동향 발표자료>정도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자료 활용 시에는 발표자인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사 취지

- ❖ 위험의 주관적 구성/ 위기의 주관적 의미 형성
- ❖ 개인의 위험인식 → 대응 (권고) 조치(measure) 수용과 지속에 중요
- ❖ 이와 함께 위험심리와 신뢰 역시 이해가 필요
 - 위기대응 성과=대응 역량 x 대응의 사회적 정당성
- ❖ 코로나19는 비약물적 조치에 의존한 채 1년 이상 지속
 - 조정, 조직화, 정보 공유와 소통 등 거버넌스 역량 중요성이 높아짐
- ❖ 한국 사회 구성원의 감염 위험에 대한 인식, 정서, 행태를 알아보는 조사 필요성
 - 반복 조사로 '동향'을 알아보는 기회
 - 결과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에서 함의를 살펴보는 기회
 - 자료 기반의 위기소통을 촉진하는 기회

조사 개요

- ❖ 2020년 1월~2021년 1월 전국 성인 1천명
 - 『코로나19 국민위험 인식조사 1~8차』 (한국리서치 의뢰)
- ❖ 2020년 8월과 2021년 2월 동일응답자 전국 2천명/1084명
 -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케이스탯 리서치 의뢰)
- ❖ 특정 집단 코로나19 인식 조사
 - 지자체(경기도민, 서울시민) 특정 집단 (확진자, 접촉자, 역학조사관,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 종사자, 보건소 등 방역 인력 등)
- ❖ 특정 문항 반복 조사
 - 백신접종의향
 - 전문여론조사기관 및 언론사와의 협력 조사

(참고) 조사 개요

명칭	조사기간	조사명	조사대상
2020 1월	2020.1.31~2.4	유명순 외 『코로나19 국민위험 인식조사』 1차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
2020 2월	2020.2.25.-2.28	유명순 외 『코로나19 국민위험 인식조사』 2차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
2020 3월	2020.3.25.-3.27	유명순 외 『코로나19 국민위험 인식조사』 3차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
2020 4월	2020.4.10.-4.12	유명순 외 『코로나19 국민위험 인식조사』 4차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
2020 5월	2020.5.13.-5.15	유명순 외 『코로나19 국민위험 인식조사』 5차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
2020 6월	2020.6.26.-6.29	유명순 외 『코로나19 국민위험 인식조사』 6차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
2020 10월	2020.10.27.-29	유명순 외 『코로나19 국민위험 인식조사』 7차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
2021 1월	2021.1.20-1.25	유명순 외 『코로나19 국민위험 인식조사』 8차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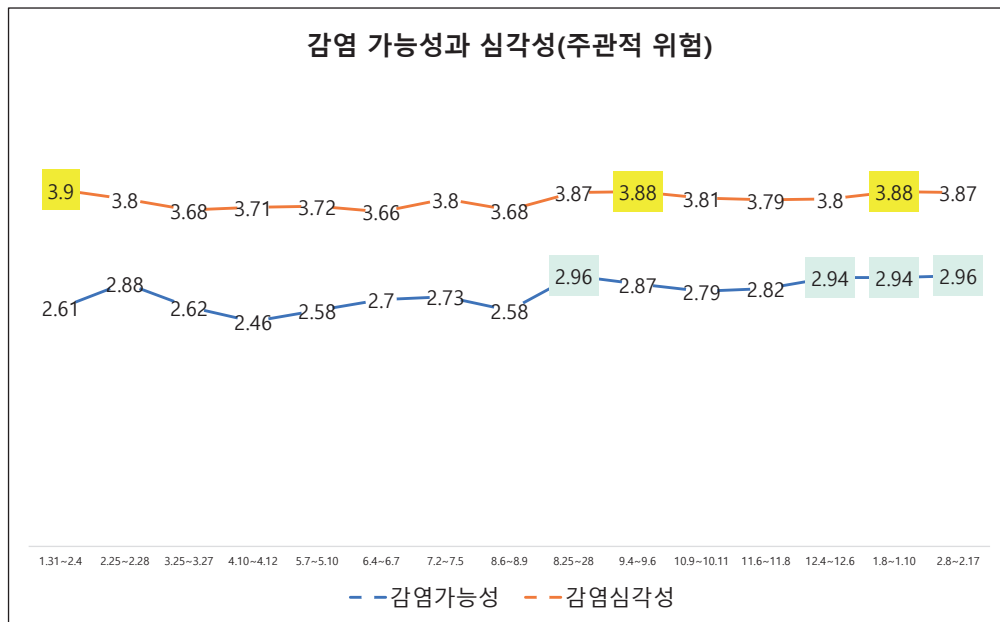
(참고) 조사 개요

조사기간	조사명	조사대상
2020.8.25~8.28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1차	전국 만 18세 이상 2,000명
2021.2.8~2.17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2차	전국 만 18세 이상 1,08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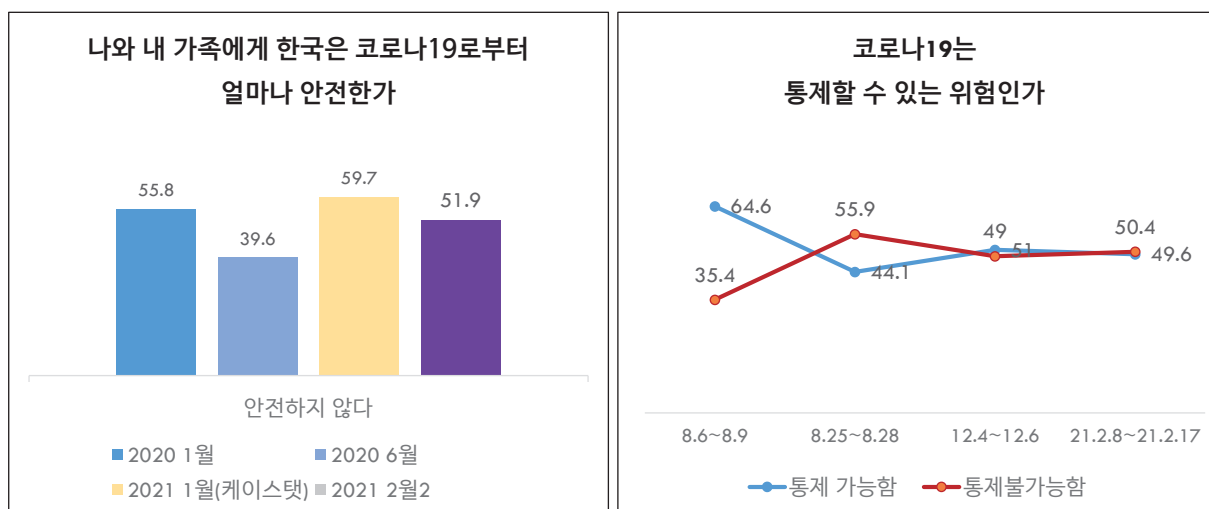
+ 서울시민 1차 (4.28-5.1, 2차 (9월)

+ 경기도민 123차 (5, 7, 9월)

코로나19 감염 위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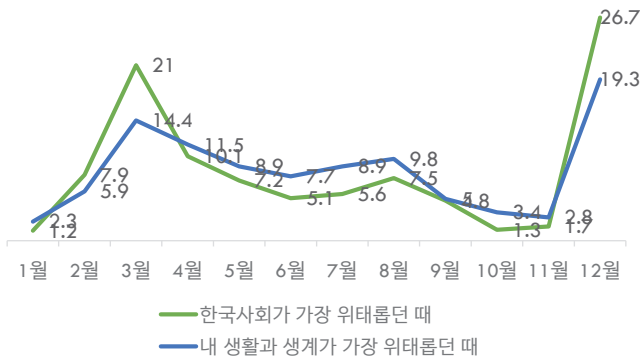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인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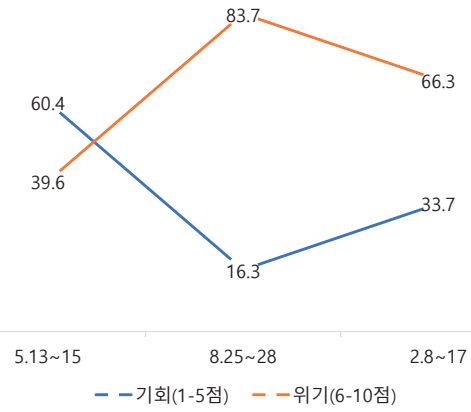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인식(2)

코로나19로 사회와 내 삶이 가장 위태롭던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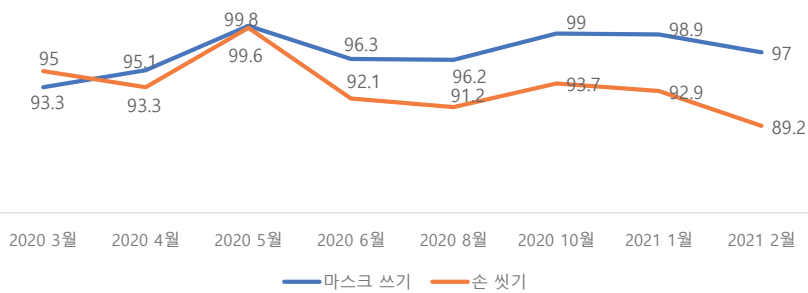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위기-기회 중 어디에 서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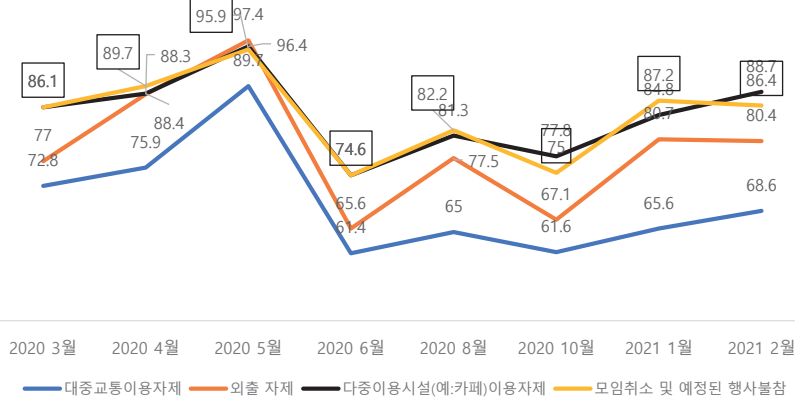


감염예방 권고 행위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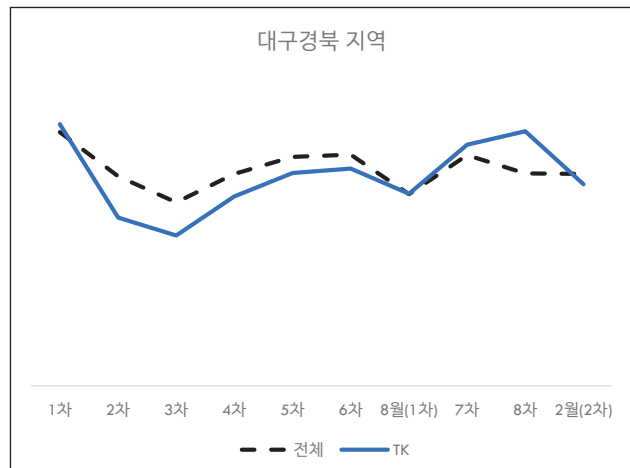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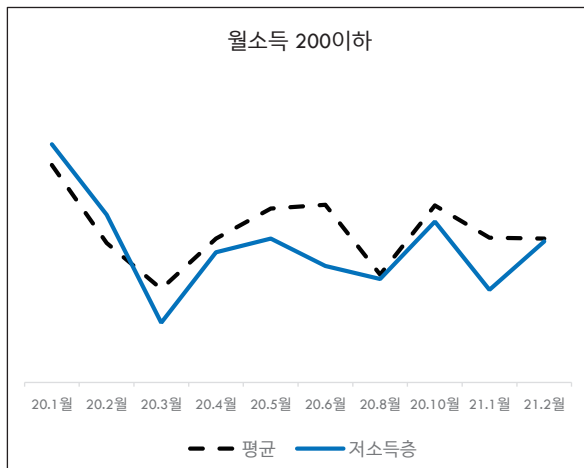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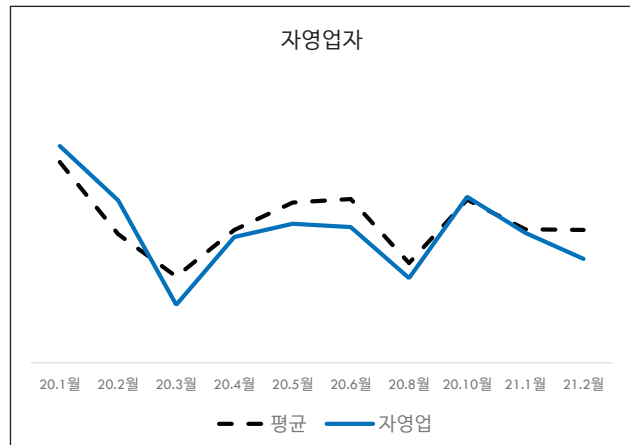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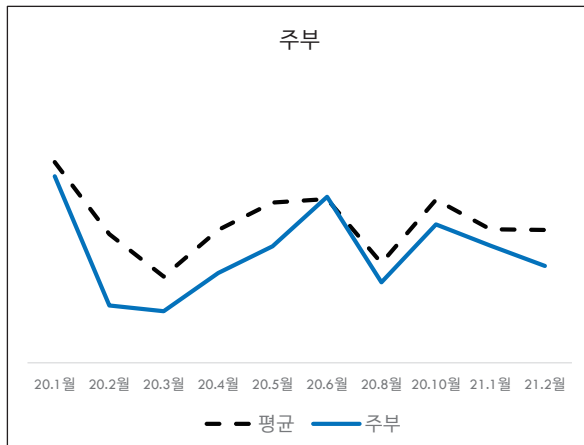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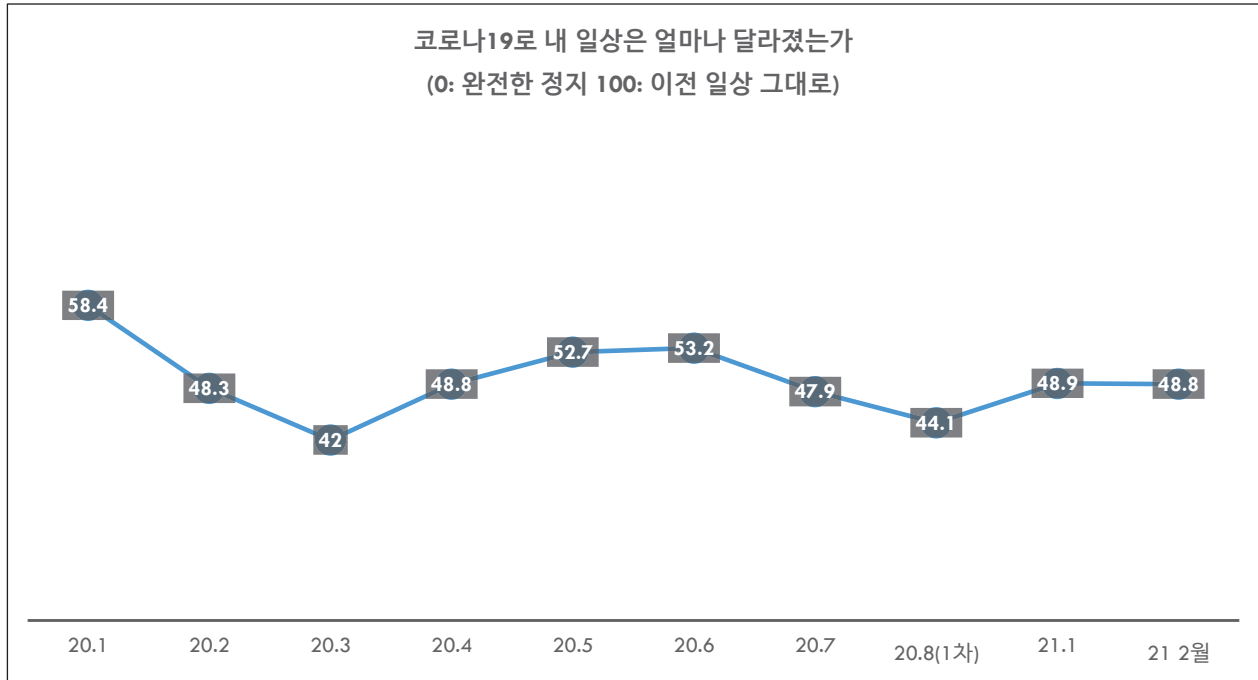
개인 수준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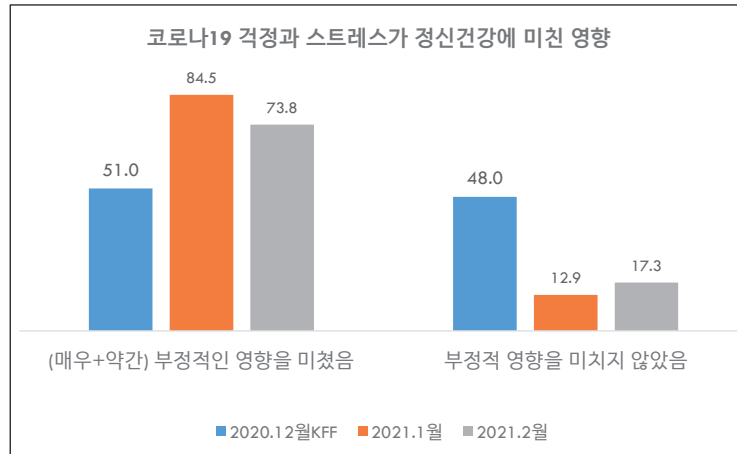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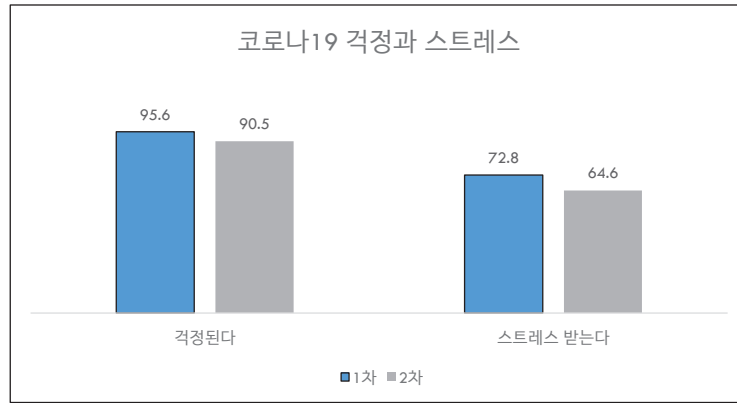
거리두기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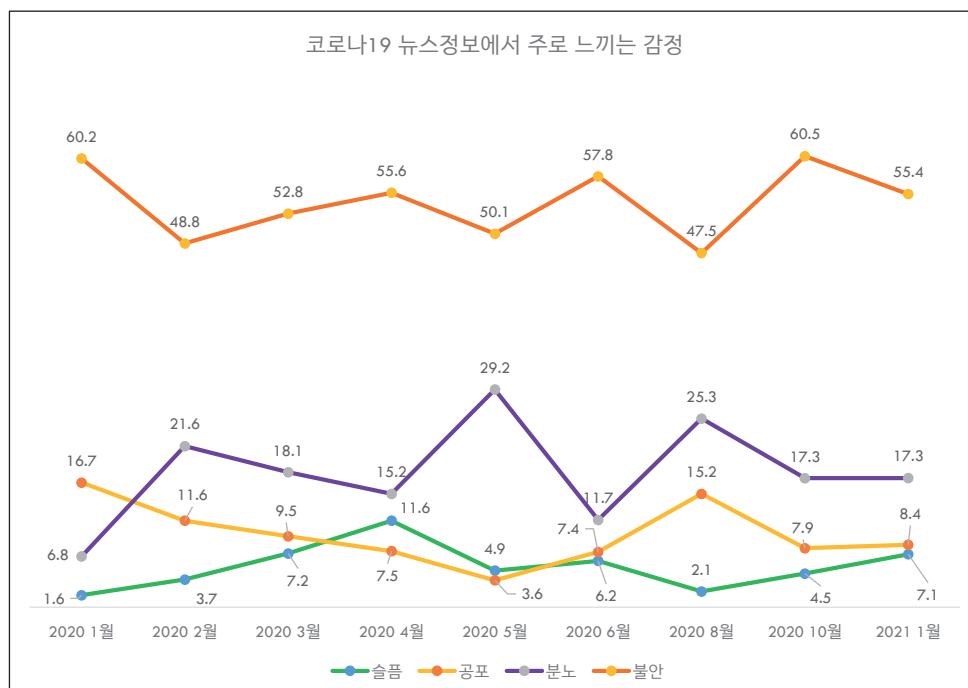
일상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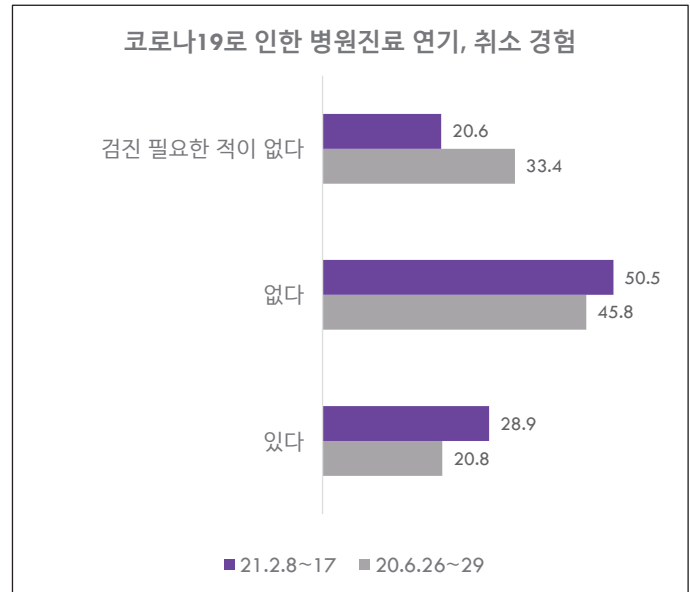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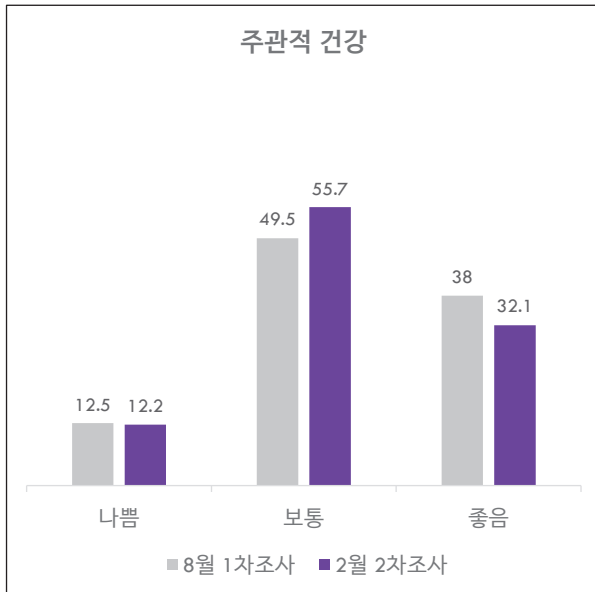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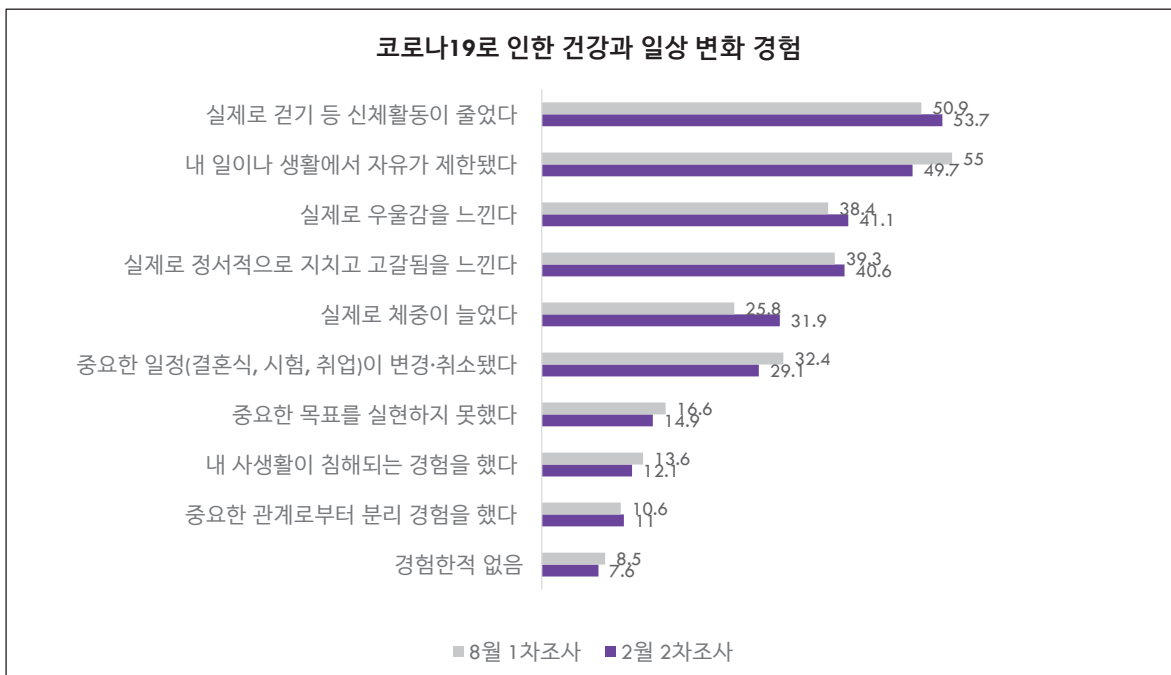
감정축발



일상변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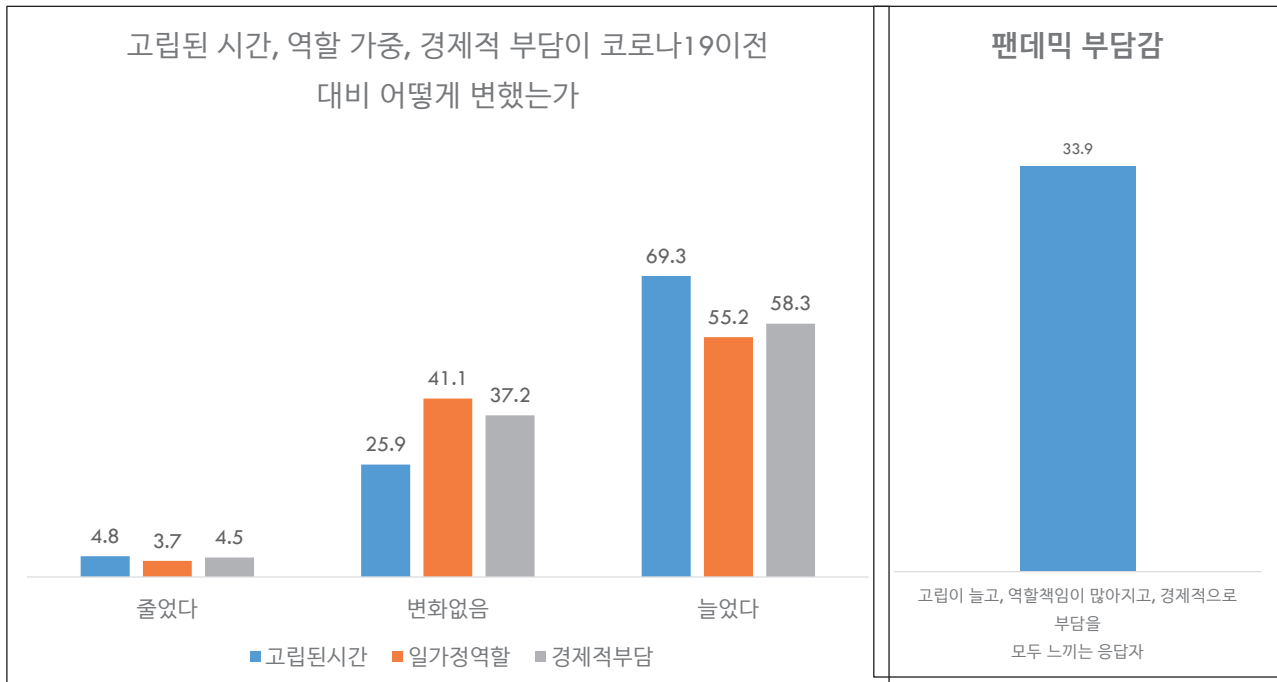
일상변화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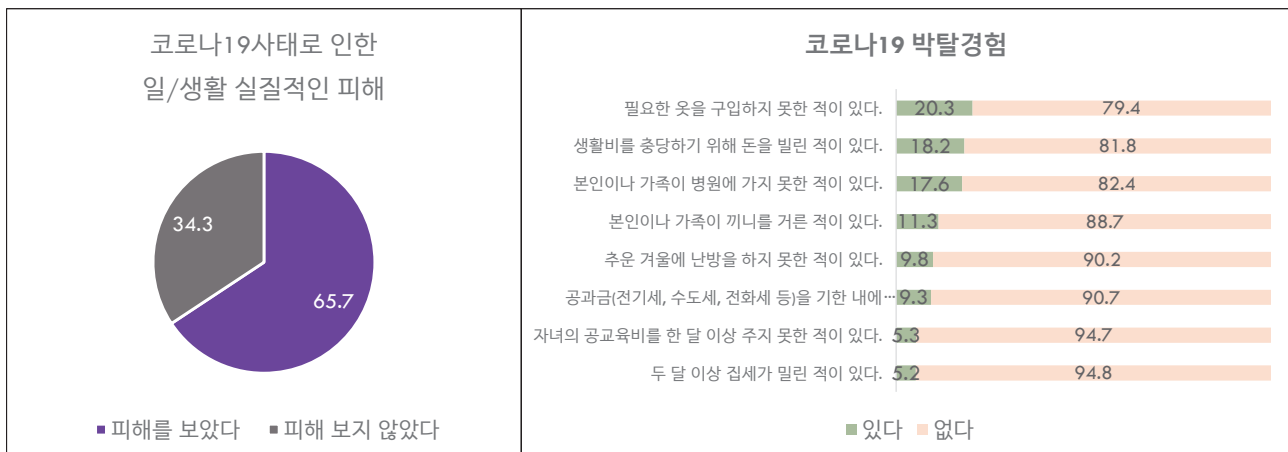
○ 전후 상승: '실제로 체중이 늘었다'(6.1%p)>'실제로 걷기 등 신체활동이 줄었다'(2.8%p)>'실제로 우울감을 느낀다'(2.7%p)

○ 전후 감소: '내 일이나 생활에서 자유가 제한됐다'(5.3%p)>'중요한 일정(결혼식, 시험, 취업)이 변경·취소됐다'(3.3%p)>'중요한 목표를 실현하지 못했다'(1.7%p)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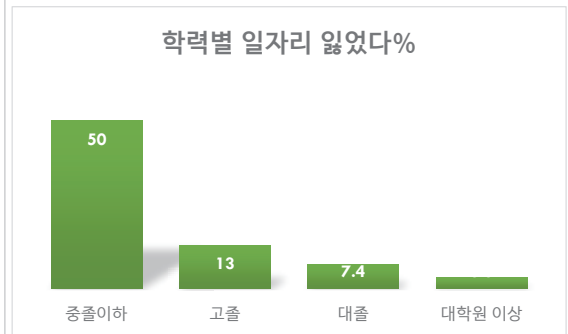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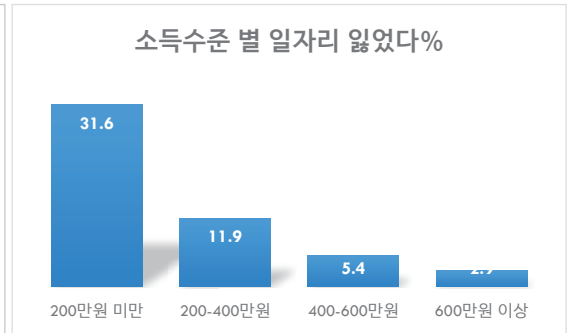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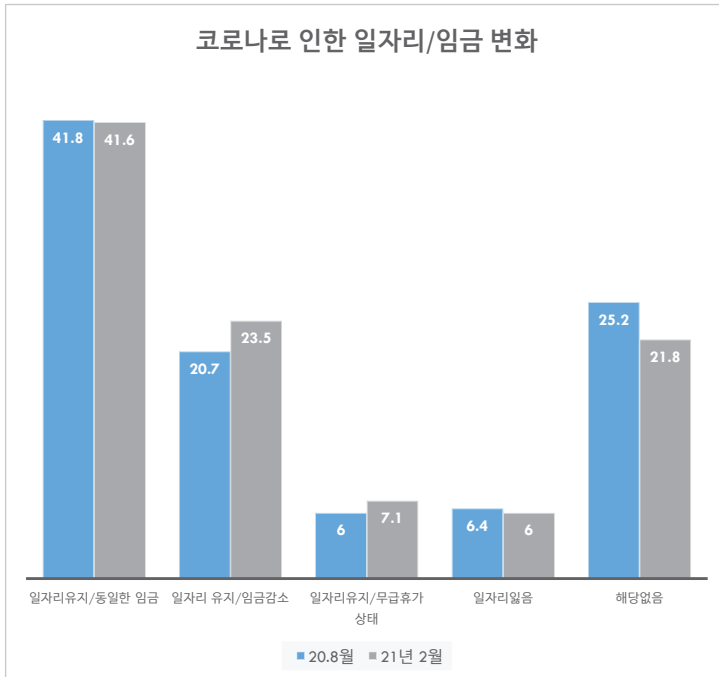
일상변화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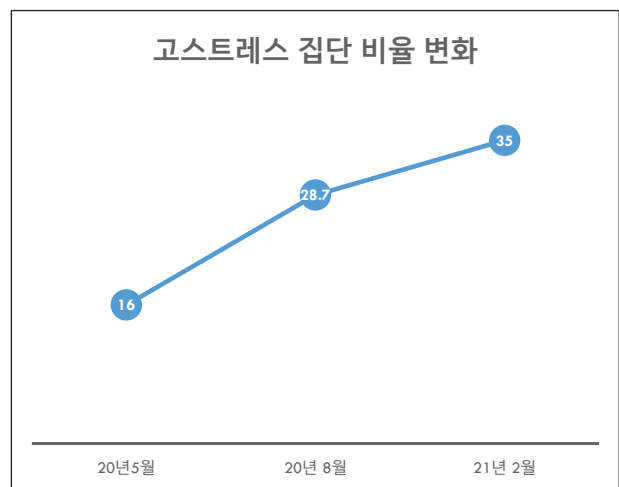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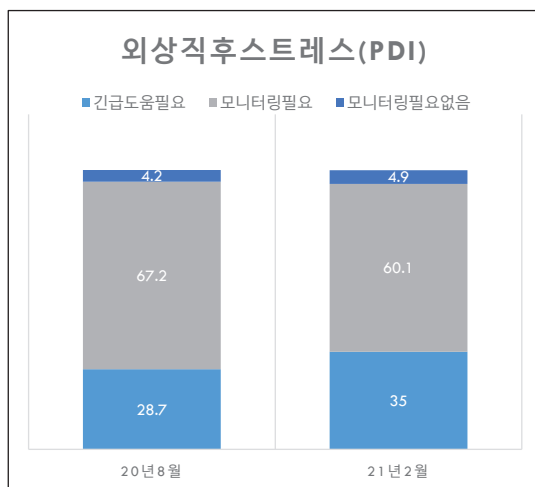
일상변화(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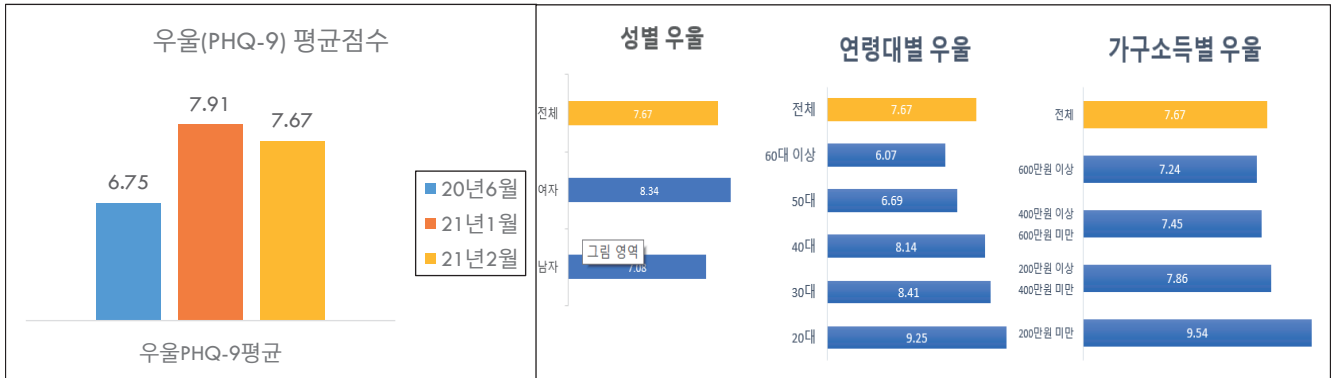
일상변화(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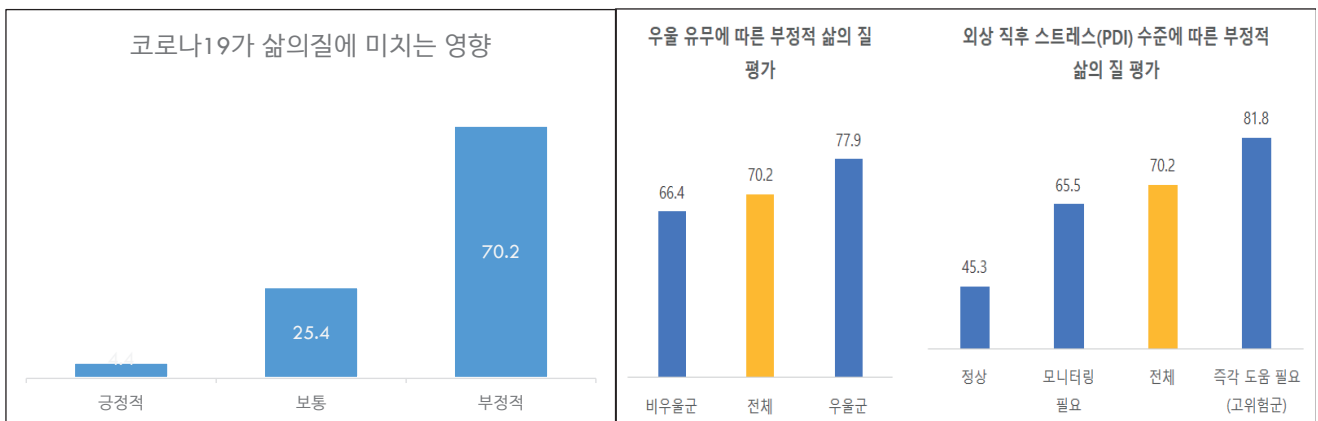
정신건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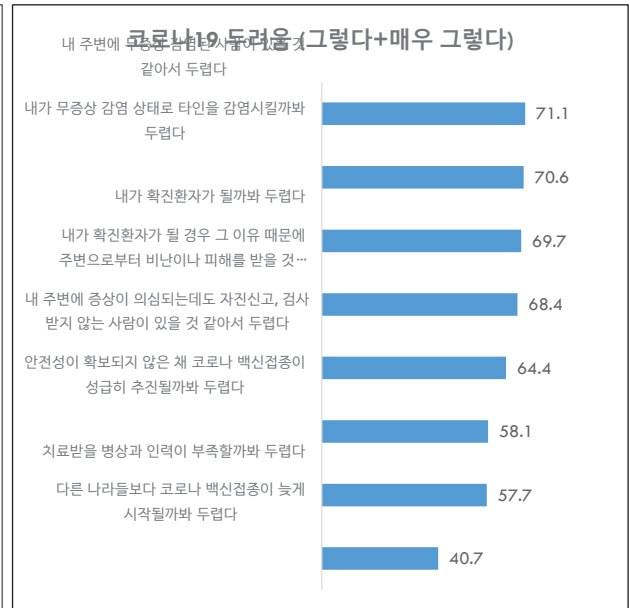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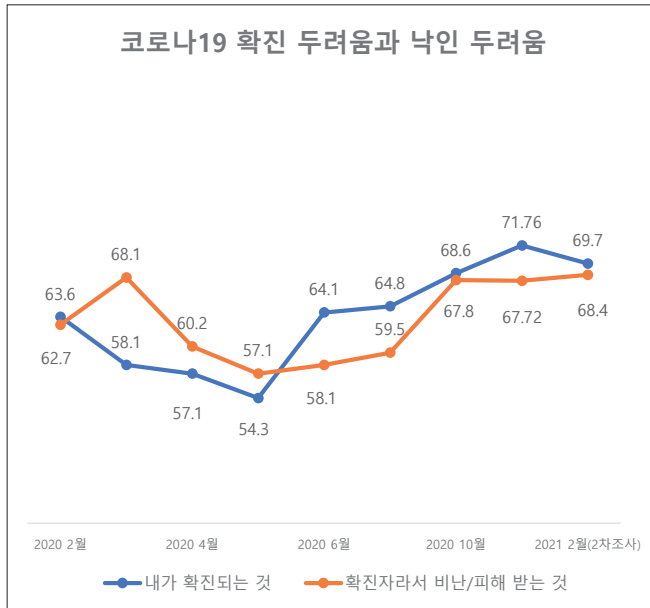
(추가) 정신건강(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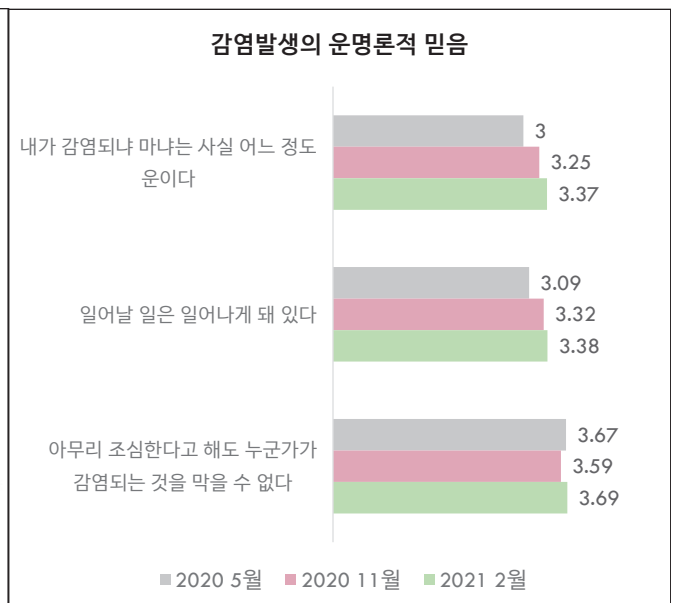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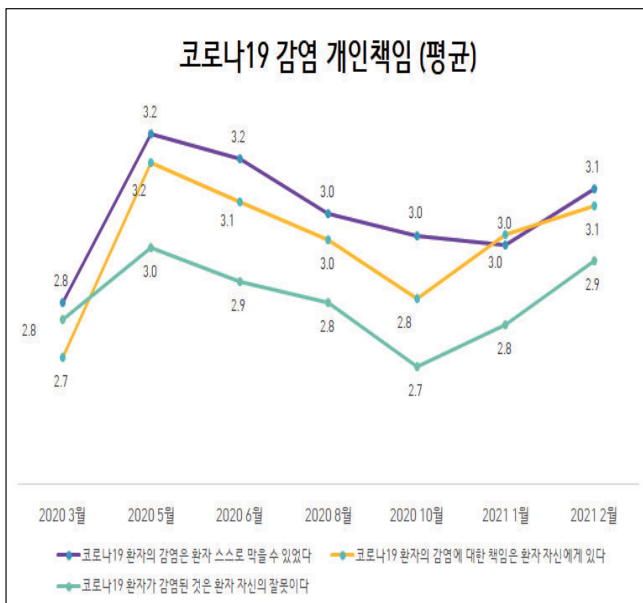
(추가) 정신건강(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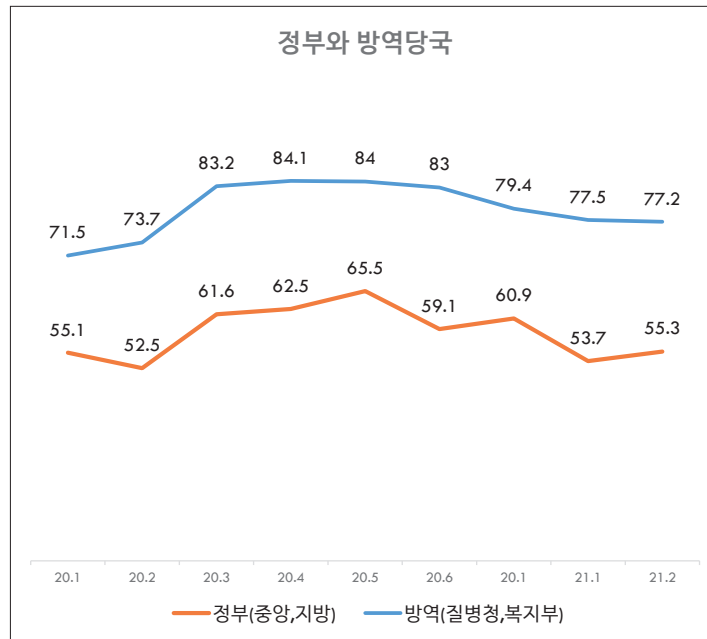
감염심리 (1)



감염 심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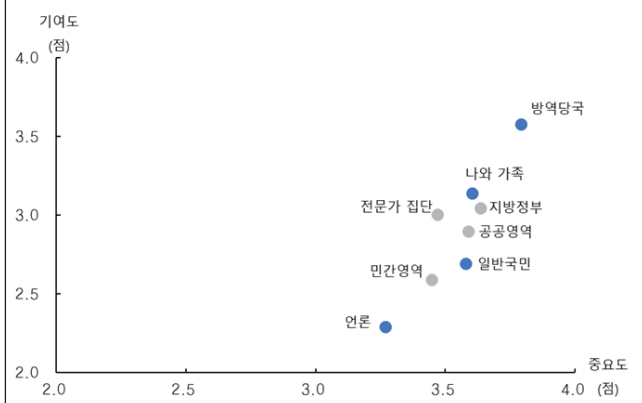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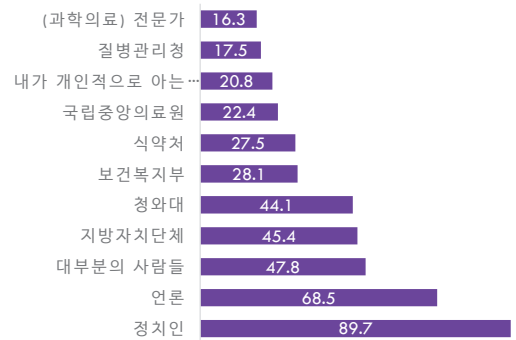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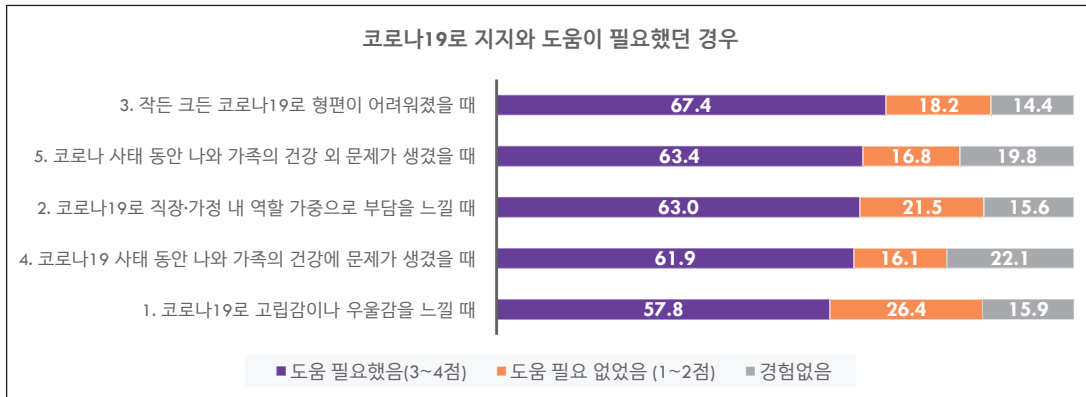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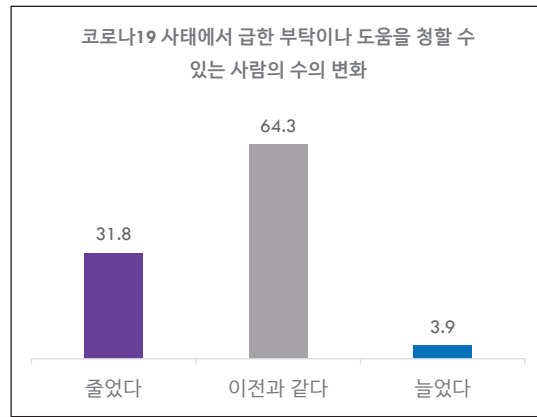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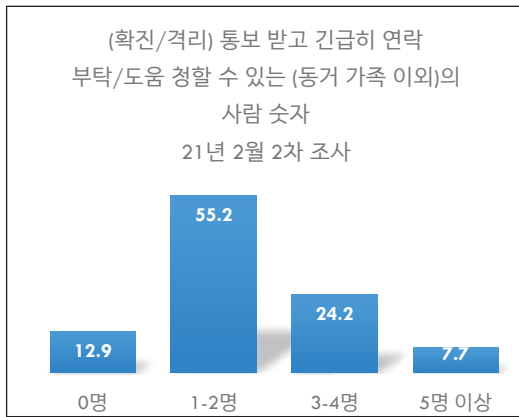
[그림 12] 경기도민의 코로나19 대응 주체별 중요도와 기여도 평가, 20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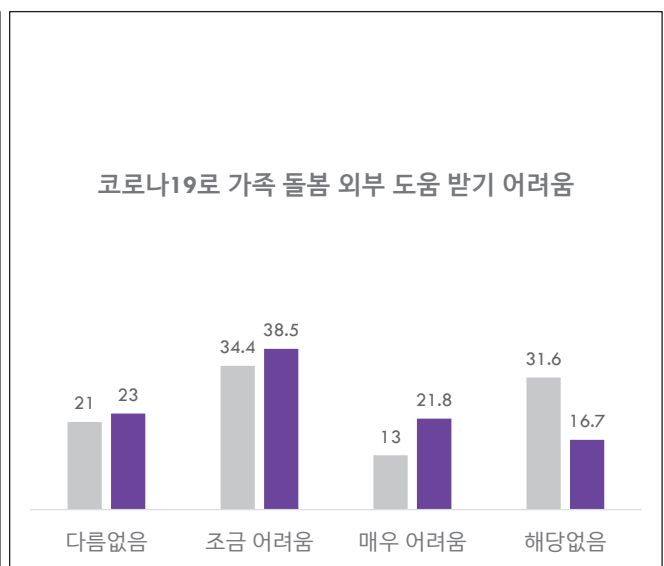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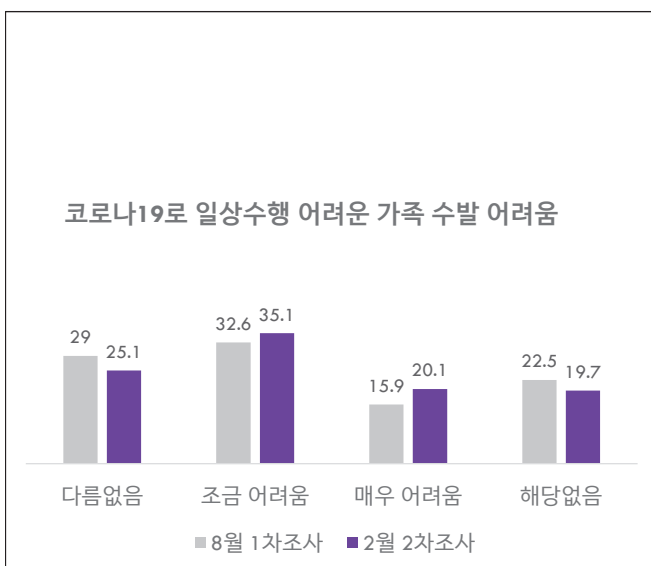
(코로나19 대응에서) 신뢰하지 않는다%



사회적 지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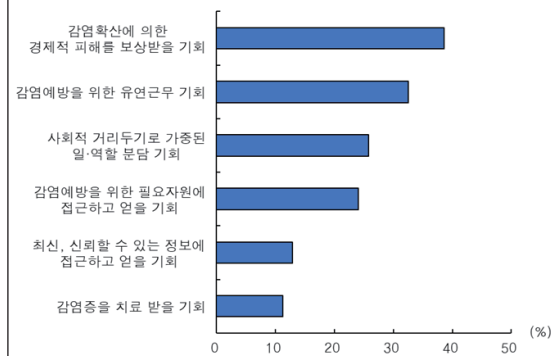


돌봄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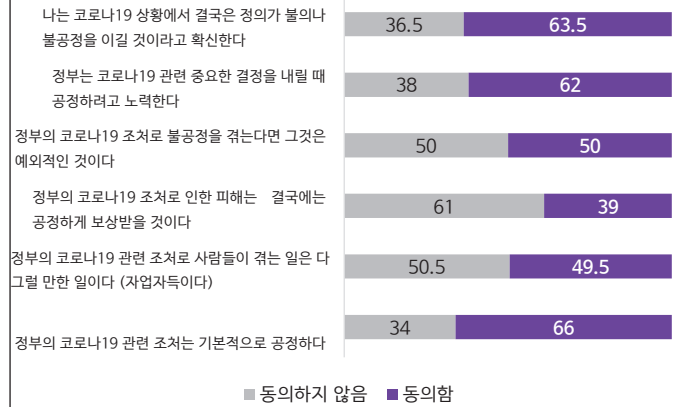
불평등/공정성

[그림 15] 코로나19 위기 극복 기회의 불평등 인식, 2020.3



주: 1)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각 항목에 대해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유명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3차」, 원자료, 20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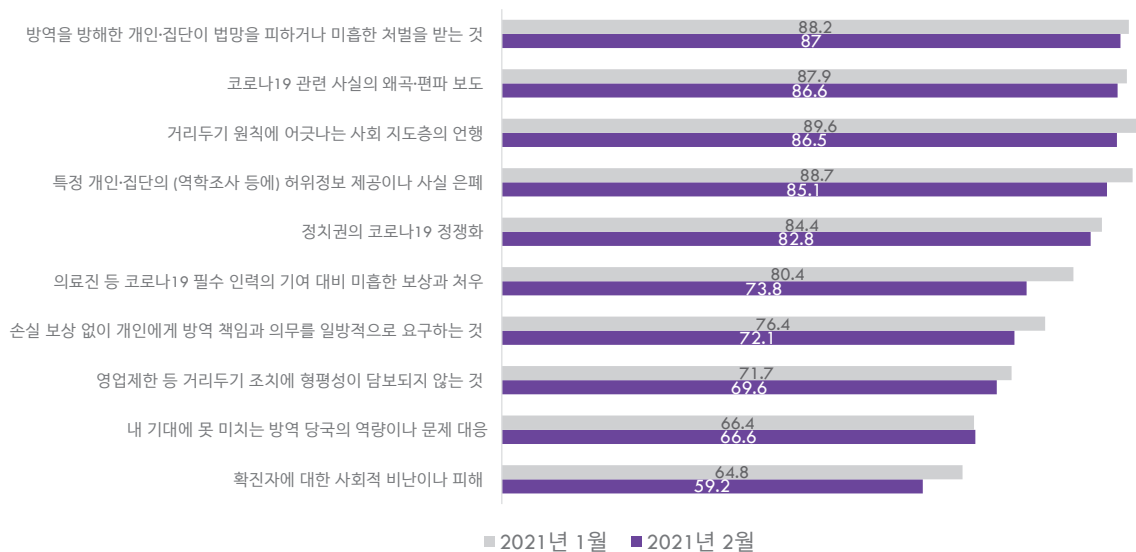
코로나19 정책 공정성 인식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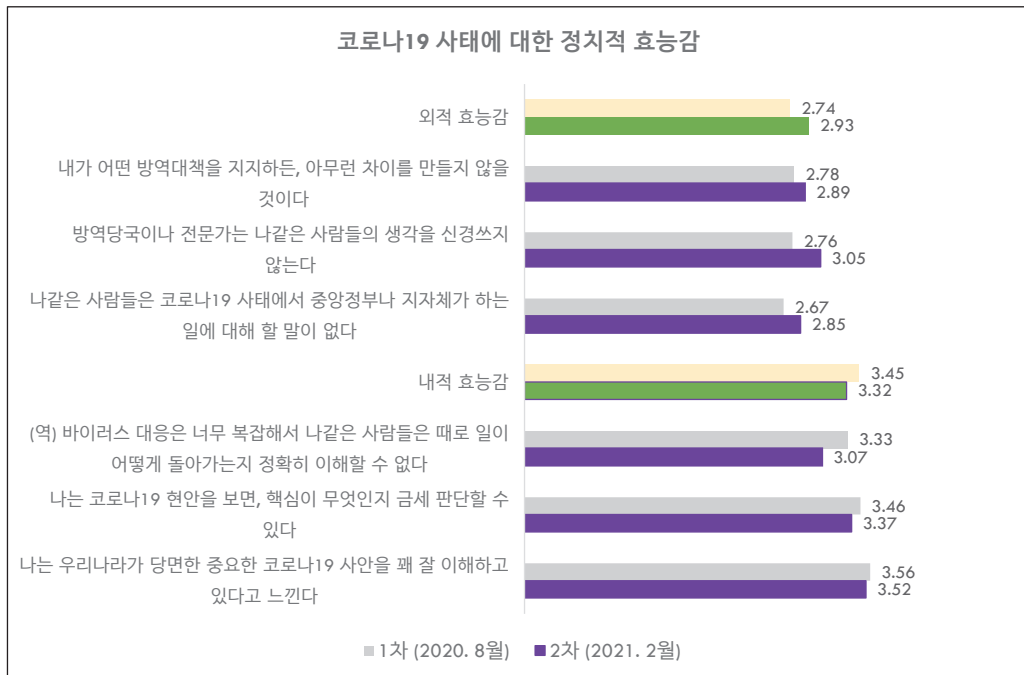
불평등/공정성

울분 유발 코로나19 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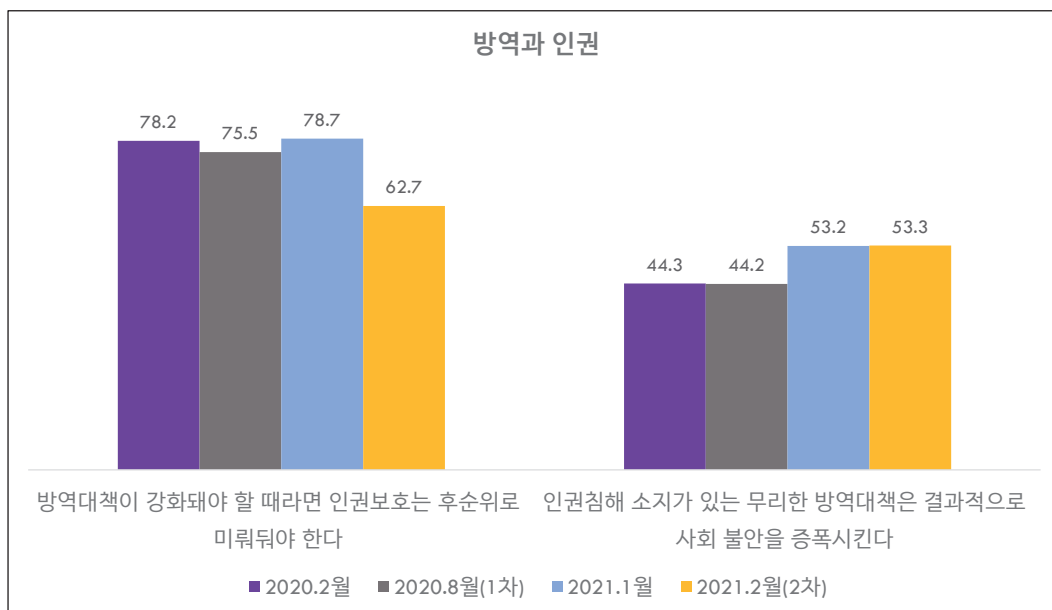


■ 2021년 1월 ■ 2021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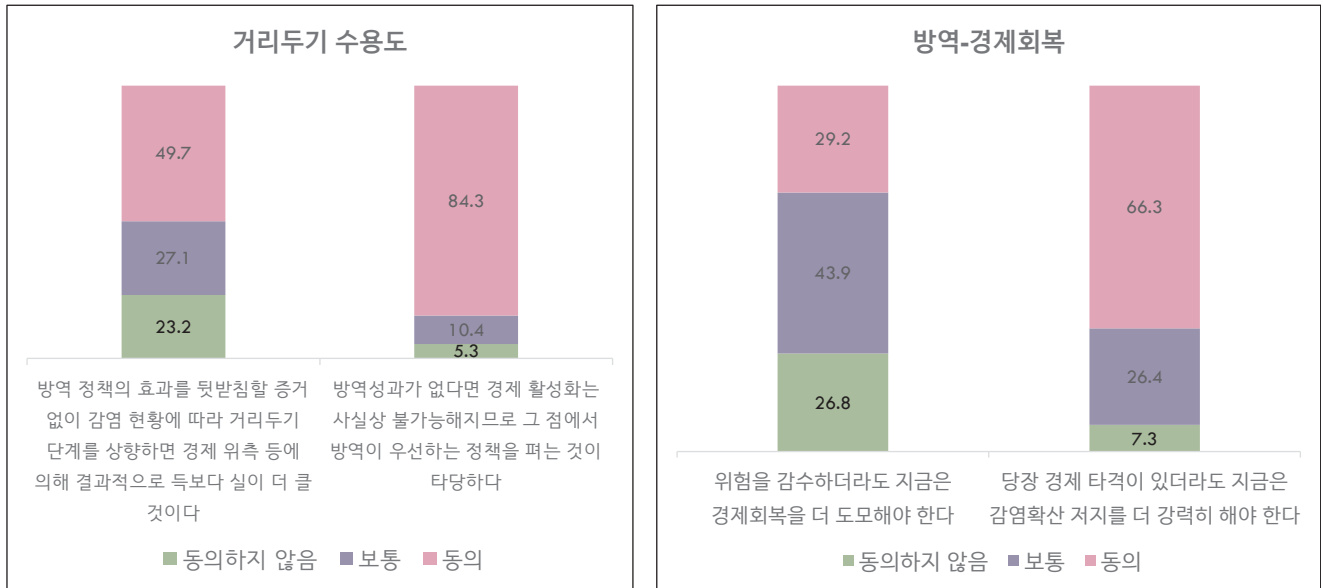
정치적 효능감



방역-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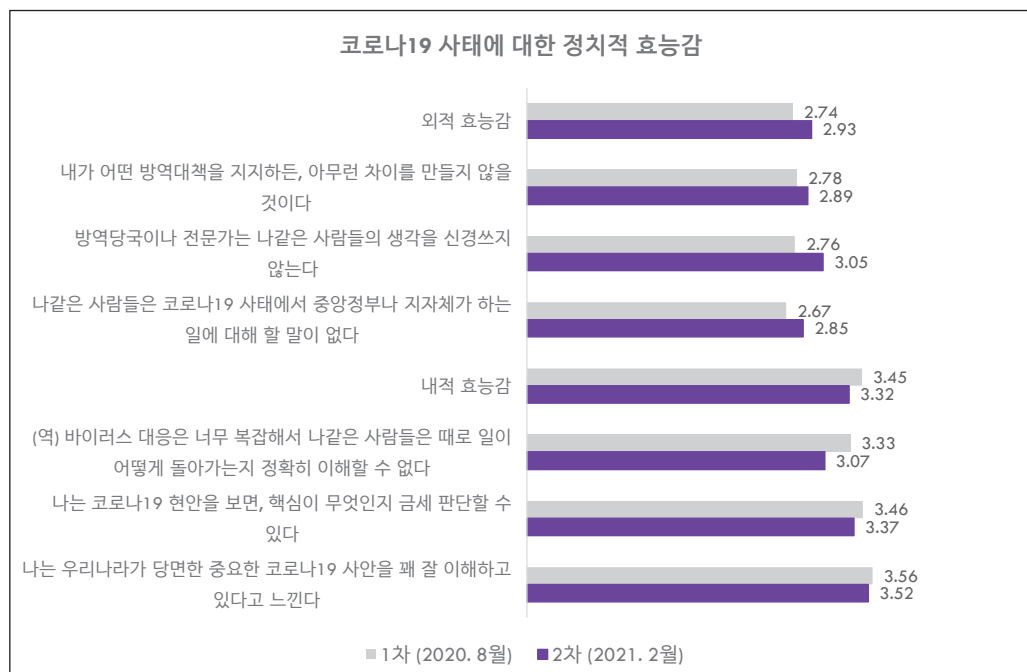


방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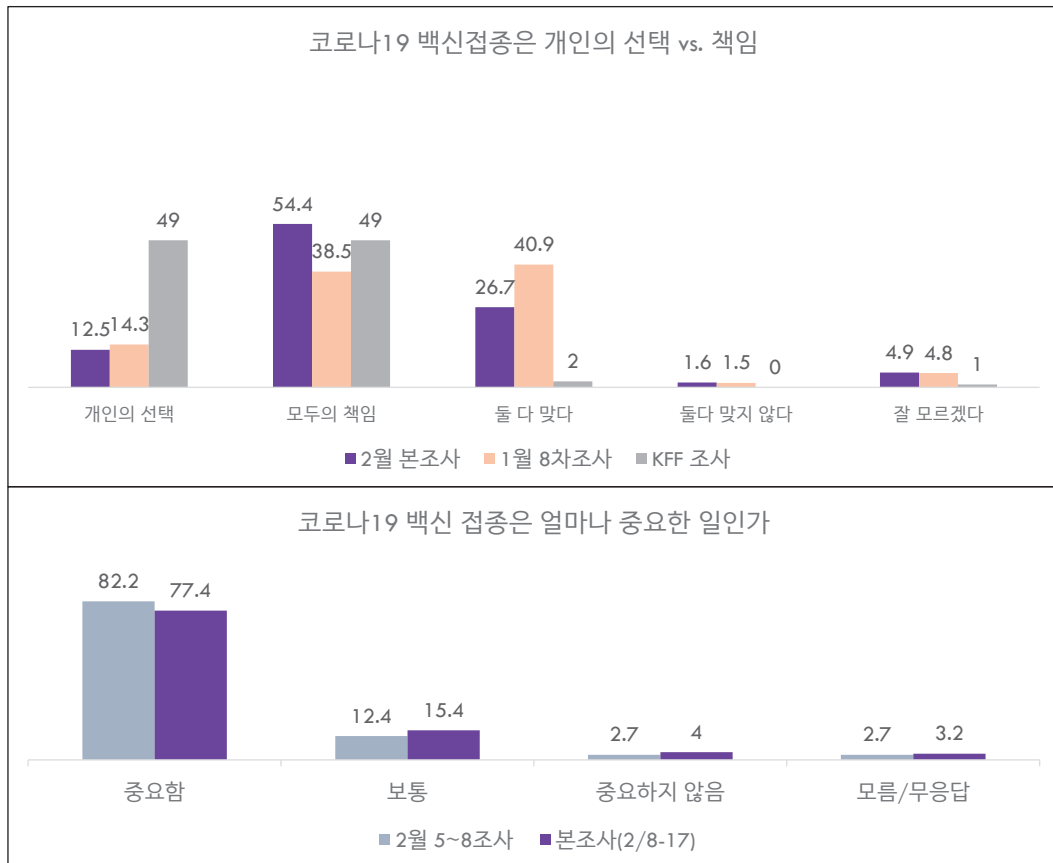


앞에서의 높은 스트레스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결과는 겉으로 드러난 **stated preference** 그 자체가 아닌, 왜 이런 입장인가?의 배경이나 이면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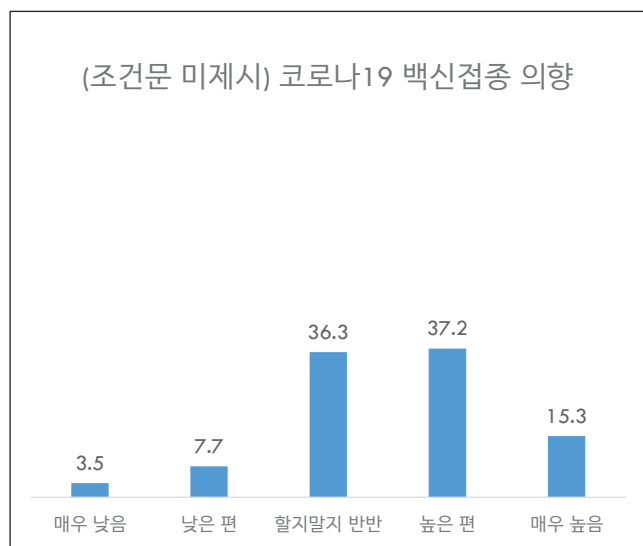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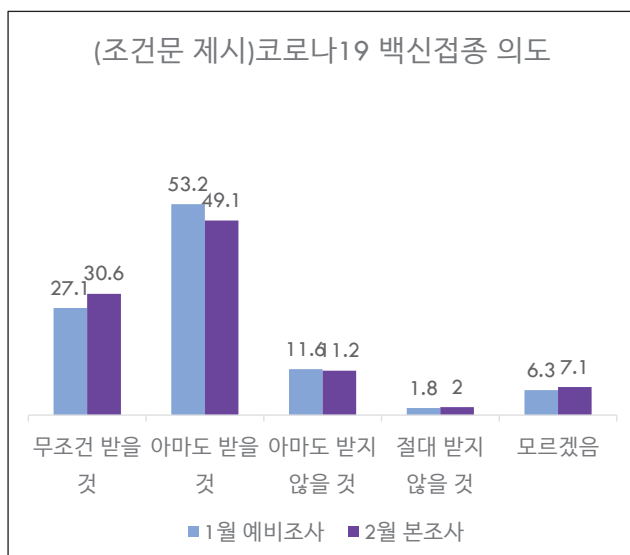
정치적 효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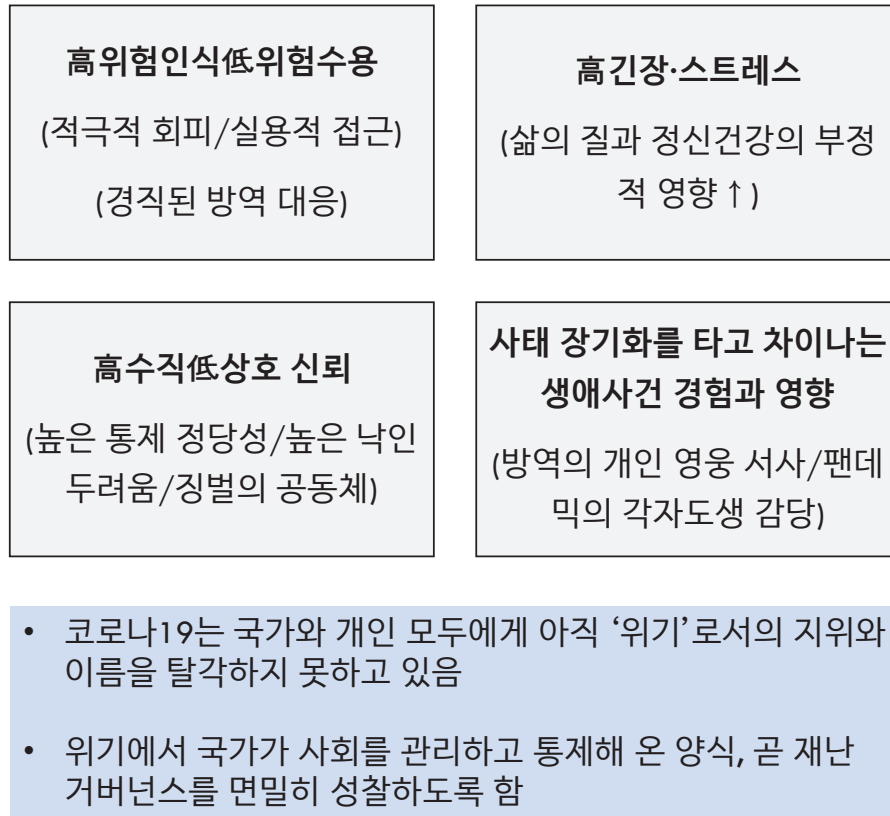
백신접종



백신접종



논의



(참고) 논의 필요한 주제

바이러스 대응, 한국 사회의 대응, K방역



감사합니다

유명순 msyou@snu.ac.kr



통계청
통계개발원



SNUAC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